
碩士學位 請求論文

濟州方言의 叙法體系 研究

— 語末語尾 活用을 중심으로 —

指導教授 金 洪 植



國語教育專攻

崔 鶴 圭

1989年度

濟州方言의 叙法體系 研究

— 語末語尾 活用을 중심으로 —

이를 教育學碩士學位 論文으로 提出함

濟州大學校 教育大學院 國語教育專攻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提出者 崔 鶴 圭

指導教授 金 洪 植

1989年 月 日

崔鶴圭의 碩士學位 論文을 認准함

濟州大學校 教育大學院

主審 _____ 인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副審 _____ 인

副審 _____ 인

1989年 月 日

目 次

I. 緒 論	1
I.1. 研究目的 및 範圍	1
I.2. 研究方法	2
II. 叙法の 概念 및 種類	4
II.1. 叙法の 概念	4
II.2. 叙法の 種類	5
III. 語末語尾의 叙法體系	10
III.1. 平叙法	10
III.2. 疑問法	23
III.3. 命令法	33
III.4. 請誘法	39
III.5. 感嘆法	43
IV. 結 論	47
○ 參考文獻	50
○ 英文要約(Abstract)	53

I. 緒 論

I.1. 研究目的 및 範圍

국어학 연구에 있어서 地域方言의 학술적 가치가 인식되어 활발히 연구되어 온 이래, 특히 濟州方言은 그 음운상, 어휘상 등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學界의 관심 속에 다양하고 집중적인 연구가 推進되어 왔다. 그 결과 音韻論, 語彙論, 形態論의 範疇에 속하는 상당한 업적들이 이루어졌음은 주지의 사실이다.¹⁾

濟州方言이 陸地語에 비해, 古語의 形態라든지 특이한 固有의 語形을 많이 간직할 수 있었던 것은 本島의 地理的, 社會的 特殊性에 기인한다 하겠다. 그러나, 근래에 들어선 發達된 交通手段과 각종 매스컴을 통해 홍수처럼 밀어 닥치는 改新波에 의해, 年小者層의 發話를 중심으로 그 方言的 特徵이 급격히 소멸되어 가고 있다. 이에 따라 초기에는 주로 文獻的 資料蒐集과 音韻論的 研究에 치중되던, 濟州方言의 研究가 점차 형태론과 통사론으로 그 연구 범위를 확대시켜 나아가고 있다. 특히 成洛秀(1975)는 濟州方言의 통사론적 구조를 살핌에 있어, '變形-生成文法'의 이론을 적용함으로써 方言研究에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였다. 또한, 제주 방언의 動詞에 나타나는 時相(aspect)과 叙法(mood)에 대한 연구²⁾도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玄平孝(1985)

1) 특히 어휘론의 분야에서는 거의 완벽한 연구가 이루어졌다고 평가된다. 그 중 대표적인 것으로 石宙明(1947), 朴用厚(1960), 玄平孝(1985a)를 들 수 있다.

2) 康貞姬(1978), "濟州方言의 時相研究", 「梨花語文論集」4輯, 梨花女大 梨花語文學會.

李男德(1982), "濟州方言의 動詞終結語尾 變化에 나타난 時相體系에 대하여", 「韓國文化研究院論叢」40輯, 梨花女大 韓國文化研究院.

金美京(1987), "濟州島方言의 疑問法研究", 濟州大 教育大學院.

玄平孝·金洪植·姜根保(1973), "濟州島方言의 活用語尾에 대한 研究", 「논문집」6집, 제주대학.

는 濟州方言의 定動詞語尾에 나타나는 動作相, 尊待法, 叙法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분석함으로써, 그 形態의 구조적 특징과 國語史的 位置를 밝히려 하였다. 또 金美京(1987)의 연구는 方言의 疑問法 活用に 있어 抑揚에 의한 表現上 差異를 밝히고자 시도하였다는 점에서 보다 큰 意義를 지닌다고 할 수 있겠다.

本攷는 濟州方言의 叙法樣相을 보다 명확히 파악하는 데 조금이나마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바, 연구의 범위는 제주방언의 定動詞語尾에 의해 표현되는 叙法 중에서 語末語尾에 의한 終止法으로 한정하였다.

I. 2. 研究方法

本攷에서는 論題에의 접근 방법에 있어 먼저 叙法の 概念을 정확히 규정하고, 그 유형을 전체적으로 간략하게 살핀 다음, 濟州方言의 終止法 活用に 대해 類型別로 자세히 밝히는 순서로 전개할 것이다.

方言은 그 성격상, 문헌에 기록된 文章語의 形態라기보다는 실제 생활에서 言衆에 의해 자유분방하게 표현되어지는 談話語의 形態로 존재한다. 따라서, 方言의 叙法 表現에 있어 叙法形態素만이 아니라 '抑揚(intonation, tone)' 또한 매우 중요한 기능을 지닌다는 것은 재론의 여지가 없는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濟州方言의 研究에 있어서, 抑揚의 중요성이 그다지 깊이 認識되지 못했다는 것은, 앞서 말했듯이 그 特性上 原語民(native speaker)에 의해 대를 이어 口碑傳承되어 오는 濟州方言의 서법 체계를 정확히 파악함에 있어, 中대한 學問的 誤謬를 범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本攷에서는 濟州方言의 終止法 活用時 나타나는 抑揚의 類型도 함께 살펴 보고자 한다.

本攷에서 제시하는 例文은 주로 筆者가 原語民들의 發話에서 추출한 것이며,

玄平孝(1985), "濟州島方言의 定動詞語尾研究", 「濟州島方言研究(論攷篇)」, 二友出版社.

洪宗林(1975), "濟州島方言의 疑問法에 대한 考察", 「論文集」8輯, 韓國國語教育研究會.

그밖에 濟州大學校 耽羅文化研究所의 「濟州說話集成(Ⅰ)」 등 方言原音 그대로 轉寫된 각종 문헌과 先功者들의 논문에 인용된 것들에 대해 타당성을 면밀히 檢討하여 再引用한 것도 있다. 또, 語末語尾의 분석과 분류에 있어서는 玄平孝의 「濟州島 方言研究(論攷篇)」(1985)에 수록되어 있는 附錄Ⅰ. '格語尾 및 活用語尾'를 참고하였다.



II. 叙法の概念 및 種類

II. 1. 叙法の概念

濟州方言의 叙法體系를 논하기에 앞서, 우선 학자마다 다양하게 規定하고 있는 서법의 개념을 종합·검토하여 가장 타당한 概念을 設定할 필요가 있다.

Curme는 叙法の 概念을

Mood is a grammatical form denoting the style or manner of predication.³⁾

라 하여 '叙述語의 樣式이나 태도를 나타내는 문법적 형태'라 하였고, Jespersen은

It is much more correct to say that they express certain attitudes of the mind of the speaker towards the contents of the sentence.⁴⁾

라 하여 '文의 내용에 대한 話者의 어떤 心的 態度를 표현하는 것'이라 규정하였다. 金敏洙(1980)는 서법을 '文의 내용에 대한 話者의 叙述樣式이며, 끝맺는 文末의 樣態素'⁵⁾라 하였으며, 玄平孝(1985)는 '發話(文章)의 內容에 대하여 話者의 心的 態度가 表現되어지는 것'⁶⁾이라고 했다. 그밖에, 全仁得(1979)은 '話者와 聽者 사이에서 어떠한 형태의 意思傳達行爲가 이루어졌느냐 그리고, 話者가 命題에 대하여 어떤 態度를 갖느냐에 따라서 決定된 文法範疇'⁷⁾라 하였고, 李仁模(1975)는 叙法을 '叙述

3) George Oliver Curme(1961), 「Syntax」, Tokyo, p.389.

4) Otto Jespersen(1955), 「The Philosophy of Grammar」, London, p.313.

5) 金敏洙(1980), 「國語文法論」, 一潮閣, p.288.

6) 玄平孝(1985), op.cit., p.78.

7) 全仁得(1979), "慶北尙州方言의 活用語尾 研究", 嶺南大學院, p.9. (이정, "서법의 정의와 분류", 말3집, p.82에서 재인용)

語로써 文 內容에 대한 話者의 어떤 心的 態度를 表示하는 文法的 形態⁸⁾라고 定義하였다. 또, 이원재(1976)는 ‘발화상에 있어서, 말하는 이가 그의 의도하는 내용을 어떠한 방법이나 태도로써 표현할 것인가 하는 것이 문법적인 형태로 언어에 반영될 때 지칭하는 문법 범주’⁹⁾라고 개념 정의하였다.

이상의 諸說을 종합하여 검토한 결과, 그 의미하는 바가 거의 대동소이함을 알 수 있다. 이에 따라 筆者는 叙法(mood)의 概念을 ‘인간의 意思傳達行爲에 있어서, 話者가 發話(文)의 內容에 대한 自身の 意態(state of mind)를 표현한 叙述樣式’이라고 規定한다.

II. 2. 叙法의 種類

국어의 서법 체계는 크게 두 가지로 그 유형을 구분할 수 있는 바, 先語末語尾로 표현되어지는 것과 終結語尾에 의해 표현되어지는 叙法形態로 兩分할 수 있다.

선어말어미로 표현되어지는 叙法은 그 下位分類에 있어서 학자마다의 의견이 매우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어, 이에 대한 綜合的 檢討가 필요한 실정이다. 그러나, 本攷의 목적은 일단 濟州方言의 用言 終結語尾에 의해 표현되어지는 叙法을 보다 체계화하는 데 있으므로, 前者에 대한 檢討는 후일의 과제로 미루고 玄平孝(1985)의 分類를 통해 간략히 살펴 보는 데 그치고자 한다.¹⁰⁾

선어말어미에 의한 서법은 크게 直說法, 回想法, 推測法, 意圖法 등으로 그 類型을 分類할 수 있다.

「直說法」은 ‘화자가 動作主의 동작·성질·상태를 指定하여 직접 말하는 叙法’이며, 「回想法」은 ‘화자가 화자 자신이나 상대자의 과거 경험한 동작·성질·상태를 회상하여, 또는 회상시켜 말하는 叙法’이다. 「推測法」은 ‘화자가 동작주의 동작·성질·상태를 추측하여 말하는 叙法’으로서, 단순한 추측만이 아니라 動作主의 동작의

8) 李仁模(1975), “中世國語의 叙法과 時制의 研究”, 高麗大 大學院, p. 8.

9) 이원재(1976), “國語의 叙法體系에 對한 研究”, 연세대 교육대학원, p. 4.

10) 玄平孝(1985), op. cit., pp. 78~106.

區 分	變 異 形 態
未 完 了 相	/(-암-~-엄-)-람-/
完 了 相	/(-앗-~-엇-)-랏-(-안-~-언-)-란-/
未 完 了 存 續 相	/(-암시-~-엄시-)-람시-(-암ㅅ-~-엄ㅅ-)-람ㅅ-/
完 了 存 續 相	/(-아시-~-어시-)-라시-(-앗ㅅ-~-엇ㅅ-)- -랏ㅅ-(-아ㅅ-~-어ㅅ-)-라ㅅ-/

이제, 語末語尾에 의한 叙法의 種類를 살펴 보기로 한다. 語末語尾에 의한 서법 체계의 분류는 先語末語尾에 의한 서법의 경우보다 훨씬 더 학계의 異見이 많이 나타나고 있는 바, 적게는 3分法으로부터 많게는 7分法까지 적용되고 있다. 語末語尾에 의한 서법 체계의 분류 중, 각종의 문법서에 나타난 대표적인 것을 종합하여 학자별로 정리하면 대략 다음과 같다.¹²⁾

學者別 叙法體系 分類表

學 者 別	서법구분	평서법	의문법	명령법	청유법	감탄법	응낙법	약속법
이 회 승		○	○	○	○	○	○	○
양주동 · 이승녕 · 이명권		○	○	○	○	○	○	
강운호 · 성기철		○	○	○	○	○		○
정인승 · 강복수 · 이을환 이길록 · 고영근		○	○	○	○	○		
김 민 수		○	○	○		○		
최현배 · 허웅배 이은정 · 이홍배		○	○	○	○			

12) 이원재(1976), op. cit., pp. 7~18.

조병진(1977), "서법에 있어서의 정중도의 변동에 대한 연구," 延世大 教育大學院, p. 11.

위의 分類表를 살펴 볼 때, 諸學者의 의견에 다소 차이는 있으나, 平叙法, 疑問法, 命令法, 請誘法, 感嘆法의 設定에는 큰 異見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최현배(1961)는, 평서문이 사실을 서술함에 있어서 話者의 주관적 생각과 마음 밖의 객관적 사실을 나타낸다고 할 때, 느낌 또한 이 범주를 벗어나지 못한다는 점과, 감탄문도 평서문처럼 남의 물음에 대한 대답으로 쓰이기도 할 뿐더러 다른 분류에 속하는 文章에서도 감탄의 내용을 표시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感嘆文을 平叙文에 포함시켰다.¹³⁾ 그러나, 筆者의 見解로는 감탄문의 경우 그 표현 형식이 평서문이나 의문문 또는 명령문의 그것과 별로 다를 것이 없다 하여도, 그 表現樣式에 意圖性이 가장 적으며, 感情을 설명하기보다는 話者 自身의 心的 感動狀態를 그대로 表出시킨다는 점에서 이를 별개의 독립된 서법으로 分類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金敏洙(1980)는 請誘文을 ‘命令法勸誘形’이라 하여 命令文의 하위 범주로 처리하였다.¹⁴⁾ 그러나 명령문이 話者가 상대자에게만 일방적으로 어떤 行爲를 할 것을 요구하는 데 대하여, 청유문은 화자 자신도 상대자와 함께 그 행위에 동참한다는 의미를 內包함으로써, 명령문과는 달리 상대자에게 부드러운 要請을 할 수 있다는 점 등에 비추어 이를 별개의 叙法으로 독립시킴이 타당하다고 본다.

위의 표에서 보듯이, 거의 대부분의 학자들이 約束法과 應諾法(許諾法)을 인정하지 않는 바, 金敏洙(1980)는 약속문을 ‘可能法約束形’이라 하여 平叙文에 포함시키고, 응낙문은 ‘可能法許諾形’이라 하여 命令文의 하위 범주로 처리하였다.¹⁵⁾ 필자의 의견도 그와 같다. 즉, 約束形의 경우에 話者 자신의 미래의 행위를 상대자에게 직접 약속한다는 특수성은 인정할 수 있으나,

- (1) 이것은 아빠가 하세요.
 그래, 그것은 내가 하마.
- (2) 그것은 내가 하마.

와 같은 예에서 볼 수 있듯이, 동일한 형태의 표현일지라도, (2)와 같이 狀況에 따

13) 최현배(1961), 「우리말본」, 정음사, pp. 829~841.

14) 金敏洙(1980), op. cit., p. 290.

15) Ibid.

라서는 자신의 미래의 행위를 화자가 상대자(청자)에게 직접 要請하는 경우에도 사용된다. 따라서, 約束形을 별개의 서법으로 설정할 필요가 없다고 본다. 應諾形(許諾形)의 경우도

(3) 아빠, 이걸 제가 먹을래요.

그래, 그걸 네가 먹으렴.

(4) 그걸 네가 먹으렴.

(3)과 같이 상대자의 미래의 행위를 화자가 상대자에 대한 直接應答의 형식으로 許可한다는 점에서 그 특수성은 인정할 수 있으나, (4)의 같이 相對者의 요청이 사전에 介在되지 않는 상태에서는 (3)과는 상이한 의미를 지니게 된다. 다시 말해서, (4)의 發話가 (3)의 경우와 형태상으로는 동일한 형식으로 표현되었다 할지라도 오히려 화자 자신의 주관이 강하게 작용된 命命文으로 사용됨으로 미루어, 이를 直接的인 對稱命命文으로서 命命文의 하위 범주로 처리하는 것이 학문적으로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이상과 같은 檢討를 통하여, 筆者는 어말어미에 의한 서법 체계를 평서법, 의문법, 명령법, 청유법, 감탄법의 5가지로 확정하고, 原語民들의 發話에서 그 叙法形態素를 차례로 분석·고찰하기로 한다.



Ⅲ. 語末語尾의 叙法體系

濟州方言에서 語末語尾에 의해 표현되어지는 叙法の 體系를 검토·분석하기에 앞서 우선 尊待等級을 區分할 필요가 있다. 일반적으로, 표준어에서는 話者が 聽者에게 上·下關係를 분명히 하여 표현하는 格式體의 경우 「해라體」(아주낮춤), 「하계體」(예사낮춤), 「하오體」(예사높임), 「합쇼體」(아주높임)로 四等分되며, 주로 話者が 聽者と 親近한 사이일 때 사용하는 非格式體의 경우 「해體」(두루낮춤)와 「해오體」(두루높임)로 二等分된다. 後者は 주로 談話語에서 사용되는데, 「해體」는 「해라體」, 「하계體」의 대상에게, 「해오體」는 「하오體」, 「합쇼體」의 대상에게 적용된다.

濟州方言은 원래 '主體尊待'의 형태소 /-시-/가 잘 나타나지 않는 등, 표준어에 비해 尊待法の 體系가 비교적 단순한 편으로서, 尊待等級도 「하라體」, 「하여體」, 「흡서體」의 三元的 對立體系를 이루고 있다.¹⁶⁾ 제주 방언의 「하라體」는 下待로서 표준어의 「해라體」의 대상에게, 「하여體」는 平待로서 표준어의 「하계體」와 「하오體」의 대상에게 그리고, 「흡서體」는 上待로서 표준어의 「합쇼體」의 대상에게 사용된다.

이제, 濟州方言의 語末語尾에 나타나는 叙法을 類型別로 檢討함에 있어 각기 존재 등급에 따라 「하라體」, 「하여體」, 「흡서體」의 순으로 구분하여 分析·考察하기로 한다.

Ⅲ. 1. 平叙法

平叙法은 話者が 文의 내용이 되는 어떤 사실이나 현상 등에 대하여 聽者에게 단순히 提示·說明하는 樣式의 叙法으로서, 平叙法에는 주로 내림 억양이 사용된다.

Ⅲ. 1. 1. 「하라體」의 平叙法 語尾 중 가장 代表的인 것으로 '-니다'와 '-나'를 들 수 있다.

16) 玄平孝(1985), op. cit., pp. 57~71.

가원 학교에 댕긴다. (그 아이는 학교에 다닌다.)
야원 밥을 잘 때린다. (이 아이는 밥을 잘 때린다.)
가원 밥 하영 먹나. (그 아이는 밥을 많이 먹는다.)
야원 말 잘 듣나. (이 아이는 말을 잘 듣는다.)

위의 語例에서 보듯이, ‘-ㄴ다’ 語尾는 語幹 末音이 母音일 때에, ‘-나’ 語尾는 어간 말음이 子音일 때에 相補的으로 나타나지만, 실제 濟州方言의 發話에 있어서는 동일한 意義·機能으로 사용된다. 또한 의미·기능상 ‘-ㄴ다’와 ‘-나’의 /-ㄴ- /는 直說法 形態素로 파악되는 바, 여기에서 肯定的 斷定을 나타내는 平叙法 語尾로 /-다/와 /-아/를 분석해 낼 수 있다. 또, 壯年層의 對話에서,

철수 일 잘 하느니. (철수는 일을 잘하느니라.)
이 강생인 아무거나 잘 먹느니. (이 강아지는 아무 것이나 잘 먹느니라.)

의 같은 發話도 자주 들을 수 있다. 이와 같은 ‘-느니’형의 발화는 장년층에서 年下者에게 비교적 위엄을 갖추어 표현할 때에 쓰이는 것으로서, 표준어의 ‘-느니라’와 대응되는 것이다. 여기에서도 直說法 形態素인 /-느- /를 분석·추출하여, 平叙法 語尾 /-니 /를 얻을 수 있다.

무신거 먹엄수가?(무엇을 잡숫고 계십니까?)
밥 먹엄시네. (밥을 먹고 있다.)

철수는 어딴 갔수가?(철수는 어디 갔습니까?)
가원 인척 집의 가시네. (그 아이는 일찍 집에 갔다.)

위와 같은 發話도 흔히 접할 수 있는 것인데, ‘먹엄시네, 가시네’에서 未完了存續相의 형태소인 /-엄시- /와 完了存續相의 형태소 /-아시- / 그리고 直說法 形態素 /-니- /를 각각 분석하여 평서법 어미 /-에 /를 추출할 수 있다. 그런데, 위의 예와 동일한 발화라 할지라도 相對者가 그 叙述內容을 이미 認知하고 있다

고 話者가 판단했을 때는 주로 ‘낮내림(Low Fall)’이 아닌 ‘높내림(High Fall)’의 억양을 사용하여 서술 내용에 대한 상대자의 肯定的 認定을 강하게 요구한다. 原語民들의 대화에서는,

그 사람 일 잘 흐크라라. (그 사람 일 잘하겠더라.)

철수도 그거 보아라. (철수도 그 것을 보더라.)

가윈 밥 잘 먹어라. (그 아이는 밥 잘 먹더라.)

와 같은 발화도 자주 들을 수 있는데, ‘-라라, -아라, -어라’ 語尾에서 回想法의 形態素 /-라-/ , /-아-~-어-/를 제외한 平叙法 語尾 /-라/를 分析해 낼 수 있다. 그런데, ‘-아라~-어라’가 표준어의 경우처럼 命令法이나 感嘆法 語尾가 아니라는 점은 濟州方言의 중요한 특징의 하나라 할 수 있다. 또,

오늘 비 오켜. (오늘 비 오겠다.)

그건 나도 흐켜. (그건 나도 하겠다.)

너미 톤당 푸더지려. (너무 달리다가는 옆어질라.)

의 語例에 나타나는 ‘-켜, -려’ 語尾에서 推測 또는 可能的 形態素 /-코-/과 /-리-/를 分析해내면, 평서법 어미 /-여/와 /-어/를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난 집의 가켜. (나는 집에 가겠다.)

이레 도라. 내 흐저. (이리 다오. 내가 하마.)

의 경우에서도 어미 ‘-켜, -저’로부터 意圖法 形態素 /-코-/과 /-스-/을 제외한 平叙法 語尾 /-여/와 /-어/를 分析해낼 수 있는 것이다.

야윈 사람도 아니여. (이 아이는 사람도 아니다.)

이건 책상이여. (이것은 책상이다.)

가윈 동냥바치여. (그 아이는 동냥아치다.)

위의 語例에서와 같이 평서법 어미 /-여/는 형용사 ‘아니다’의 어간이나 서술격 조사의 어간 /이-/ 또는 母音으로 끝난 體言의 뒤에 직접 연결되어 사용되기도 한다. 이 때는 叙述內容에 대한 話者의 確信을 표명한다.

표준어와 다른, 제주 방언의 發話形態로,

나 오늘 집의 갈져. (나 오늘 집에 갈 거다.)

이건 나 먹을거. (이것은 내가 먹을 거다.)

와 같은 語例를 들 수 있다. 이와 같은 발화는 年少者層의 대화에서 흔히 접할 수 있는데, 壯年層 이상의 대화에서는 ‘-르거’의 뒤에 平叙法 語尾 /-여/나 /-라/가 결부된 형태로 표현되는 것이 보통이다. 이 때, 내림 억양을 취하면 平叙文이 되지만, 오름 억양을 취하면 疑問文을 형성하게 된다. ‘-르거’는 未來時制의 冠形詞形 語尾인 /-르/과 體言 ‘것’의 變異形態인 ‘거’로 나눌 수 있다. 이처럼 語末語尾가 생략된 채, 체언 단독으로만 문장을 종결 짓는 ‘-르거’의 형태는 濟州方言의 특이한 예라 하겠으나, ‘거’가 체언 ‘것’의 변이 형태이며, 그 뒤의 語末語尾가 생략된 것으로 보아, 이를 平叙法 語尾에 포함시키지 않는다. 또,

저희 사름 오람져. (저기 사람이 오르고 있다.)

하르방이 산에 올람져. (할아버지가 산에 오르고 있다.)

자원 아방 답았져. (저 아이는 아버지 답았다.)

놀랑 얼굴이 퍼렁헛져. (놀라서 얼굴이 퍼졌다.)

와 같은 발화에서 平叙法 語尾 /-저/를 분석해 낼 수 있는데, 이 語尾는 반드시 未完了相 形態素 /(-암-~-엄-)/나 完了相 形態素 /(-앗-~-엇-)/과 결합되어 나타난다. 용언의 어간에 ‘-저’가 직접 연결된 ‘헛져(하마)’나 未完了存續相과 결부된 ‘보암시저(보고 있으마)’ 또는 完了存續相에 결부된 ‘올라시저(올라 있으마)’의 ‘-저’는 앞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意圖法 形態素 /-스-/과 平叙法 語尾 /-어/가 결합된 것으로 위의 평서법 어미 /-저/와는 별개의 것으로 처리한다.

이상과 같이, 제주 방언의 「하리體」에 나타나는 평서법 어미를 분석한 결과를 종합하면,

／(-다~-아)ㄴ-니ㄴ-에ㄴ-라ㄴ-여ㄴ-어ㄴ-저／

와 같다.

Ⅲ. 1. 2. 「하여體」의 平叙法 語尾를 分析하여 보기로 하자.

철순 이되서 밥 먹네. (철수는 여기서 밥을 먹네.)

애긴 방의서 놀았네. (아기는 방에서 놀고 있네.)

위와 같은 語例는 濟州方言의 실제 발화 현장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중년층 이상의 同年輩들 사이에서는 간혹 나타나는 것으로서, 語尾 ‘-네’로부터 직설법 형태소 /-ㄴ-/과 平叙法 語尾 /-에/를 分析해 낼 수 있다.¹⁷⁾ 이와 대응되는 回想法 語尾로,

그 사람 일 잘 하데. (그 사람 일을 잘하데.)

철순 벌써 나갔데. (철수는 벌써 나갔데.)

의 ‘-데’를 들 수 있다. 이것도 ‘-네’와 마찬가지로 중년층 이상의 동년배들 사이에서 쓰이는데, 본래 濟州方言에 있던 것이 아니라, 改新波에 의해 형성되어진 것으로 보인다.¹⁸⁾ ‘-데’도 회상법 형태소인 /-ㄷ-/과 평서법 어미 /-에/로 분석할 수 있다.

그 학생 공부 잘 하크란게. (그 학생 공부 잘하겠데.)

17) 玄平孝(1985), Ibid., p. 83.

18) _____(1985), Ibid., p. 89.

그 학생 글 잘 익언게. (그 학생 글 잘 읽데.)
철순 그되서 잘 놀안게. (철수는 거기에서 잘 놀데.)

위의 發話에서 ‘-란게, -언게, -안게’의 語尾를 확인할 수 있다. 그런데, 이 부분이 내림 억양(Falling Tone)중 낮내림(Low Fall)의 형태를 취할 때는 어떤 사실에 대한 話者의 단정적 태도를 表明하는 의미를 나타내지만, 二重方向抑揚(Bi-directional Tone)의 높오르내림(High Rise Fall) 형태를 취하면 화자 자신의 판단에 대한 肯定的 認定을 상대자에게 강요하는 의미를 지니게 된다.¹⁹⁾ 우리는 이들 語尾에서 回想法 形態素 ‘-란-, -안-, -언-’을 제외한 平叙法 語尾 /-게/를 얻을 수 있다.²⁰⁾ 이 평서법 어미 /-게/는 반드시 회상법 형태소 ‘-란-, -안-, -언-’과 결합되어 사용되는 形態論的 制約을 받는다.

그거 잘도 맛 좋으메. (그것 참 맛 좋아.)
가의네 집 나도 알메. (그 아이네 집 나도 알아.)
가의 우리 집의 잘 오메. (그 아이 우리 집에 잘 와.)

위와 같은 발화에서 平叙法 語尾 /-메/를 얻을 수 있다. 原語民들의 실제 발화에 있어서, 이 平叙法 語尾 /-메/는 반드시 용언의 어간에 직접 연결되어 사용된다. 그런데, 우리는 原語民들의 對話에서,

난 이되서 공비 하염시크메. (나는 여기서 공부하고 있을테니.)
가원 그되서 밥 먹엄시메. (그 아이는 거기에서 밥 먹고 있으니.)

와 같은 發話도 자주 접할 수 있다. 玄平孝(1985)는 위의 서술어를 각기 ‘공부하고 있겠어, 먹고 있어’로 파악하여 平叙法 語尾로 처리하였다.²¹⁾ 그러나, 필자는 그와

19) 조병진(1977), op. cit., pp. 49~50.

20) 필자는 ‘-란게, -안게, -언게’의 /-게/를 ‘좋아게, 먹어게, 하크냐게’ 등의 ‘게’와는 다른 것으로 본다.

21) 玄平孝(1985), op. cit., p. 97, p. 110.

견해를 달리 한다. 그 이유는 이들과 같은 發話가 비록 文末에 나타났다고 하더라도,

느만 가라. 난 이되서 놀암시크메. (너만 가거라. 나는 여기서 놀고 있을 테니.)
이제랑 가주. 밥도 다 먹어시메. (이제는 가세. 밥도 다 먹었으니.)

의 경우처럼 반드시 命令文이나 請誘文의 뒤에 도치된 형태를 나타내며, 그 意味 또한

날랑 이제 감시메, 놀랑 잇당 오라. (나는 이제 가고 있으니, 너는 이따가 오너라.)

의 連結語尾 /-메/처럼 條件·拘束의 뜻을 지닌다는 점 등으로 미루어, 연결 어미로 봄이 타당하기 때문이다. 이 연결어미 /-메/는 용언의 어간에 직접 연결되지 않으며, 반드시 回想法의 /-라-/, 意圖法의 /-코-/와 未完了存續相 또는 完了存續相의 형태소와 결합되어 사용된다.

나도 밥 잘 먹어. (나도 밥 잘 먹어.)
가원 산에 잘 올라. (그 아이는 산에 잘 올라.)

위의 語例로부터 平叙法 語尾 /-아~-어/를 분석해 낼 수 있는데, 위와 같은 발화는 原語民들의 對話에서 자주 접할 수 없는 것으로 改新波의 영향에 의해 생겨난 것으로 보인다. 이 語尾들은 의미·기능상 「하라體」의 ‘먹나, 잡나’에서의 /-아/와 대응되는 Zero異形態이다.²²⁾ 평서법 어미로서의 /-아~-어/는 1.3인칭의 주체 서술시에만 사용되며 내림 억양(Falling Tone)을 취한다. 동일한 표현 형태에서도 오름 억양(Rising Tone)을 취하면 疑問文이 되며, 2인칭 주체 서술시 내림 억양을 취하면 命令文을 형성하는 平叙·疑問·命令法의 同型 形態素이다.

그되도 막 좋아고. (거기도 참 좋던데.)
가원 공부 잘 흐크라고. (그 아이는 공부 잘하겠던데.)

22) 玄平孝(1985), Ibid., p.109.

그 애기 밥 잘 먹었고. (그 애기 밥 잘 먹고 있네.)
 덕분에 잘 보았고. (덕분에 잘 보았네.)
 가의 벌써 집의 가서고. (그 아이 벌써 집에 가 있던데.)

原語民들의 대화에서 위와 같은 발화를 흔히 들을 수 있는데, 여기서 平叙法 語尾 /-고/를 분석해 낼 수 있다. 平叙法 語尾 /-고/는 용언의 어간에 직접 연결되어 쓰이지 않고,²³⁾ 회상법 형태소 /(-아-~-어-)ㄴ-라-/나 未完了相의 /(-암-~-엄-)ㄴ-람-/, 完了相의 /(-앗-~-엇-)ㄴ-랏-/과 연결되어 사용된다. 또, 未完了相 形態素나 完了相 形態素와 결합되어 사용될 때, 내림 억양이 아닌 높오르내림 억양을 취하면 疑問文이 된다. 平叙文의 경우, 대개 未完了相은 2·3인칭의 주체 서술시에 그리고 完了相은 1인칭 주체 서술시에 平叙法 語尾 /-고/와 제한적으로 결합·사용된다.

이녀네 집도 잘도 좋았겔. (당신네 집도 참 좋던겔.)
 가원 밥도 잘 먹었겔. (그 아이는 밥도 잘 먹던겔.)
 오늘밤 비 올겔. (오늘밤에 비가 올겔.)
 그 사람은 모리 떠날겔. (그 사람은 모래 떠날겔.)

위의 발화에서 平叙法 語尾 /-겔/을 얻을 수 있다. 이 /-겔/은 반드시 回想法 形態素인 /-안-~-언-/이나 推測法 形態素 /-르-/과만 연결되어 사용된다.²⁴⁾ 推測法 形態素와 결합된 ‘-르겔’의 경우, 玄平孝(1985)는 ‘-르겔’로 표기하여 평서법 어미를 /-르겔/로 設定하였다.²⁵⁾ 그러나 ‘-르겔’은 표준어의 ‘-르겔’과 동일한 것으로서 /l/음 뒤에 오는 /k/음이 일반적인 음운 현상에 의해 硬音化된 것이므로 당연히 ‘-르겔’로 표기되어야 하며, 따로 설정할 필요가 없다고 본다.

23) “거 좋고. (그것 좋네.)”의 경우처럼 용언의 어간에 직접 연결되어 사용되는 것은 ‘좋다, 앓다’ 등 극히 부분적인 현상이다.

24) /-겔/이 어원적으로 ‘것을’에서 유래된 것임을 볼때, /-안-~-언-/의 ‘-나’이나 ‘-르’도 근본적으로는 ‘관형사형 어미’였던 것으로 판단된다.

25) 玄平孝(1985), Ibid., p.96, p.110.

그된 나가 가꺠. (저기는 내가 갈꺠.)

나도 밥 먹으꺠. (나도 밥 먹을 꺠.)

위와 같은 發話도 자주 들을 수 있는데, ‘-꺠’을 의도법 형태 /-꺠-/와 平叙法 語尾 /-얼-/로 분석할 수 있다.

그건 오늘 내 ㅎ주. (그것은 오늘 내가 하지.)

玄平孝(1985)는 위의 예를 들어 語尾 ‘-주’를 의도법 어미 /-꺠-/와 平서법 어미 /-우-/로 분석하였다.²⁶⁾ 그러나, 李男德(1982)은 玄平孝의 분석에 異見을 제시하고 있는 바,²⁷⁾ ‘ㅎ주’는 육지어의 ‘하지요’에 해당하는 것으로, 語尾 ‘-지’는 願望을 나타내지 않고 오히려 方言의 ‘ㅎ엿째’의 ‘지+어’의 ‘-지’와 동일한 것으로서, 본래는 抽象名詞자격(抽名 ㅌ + 이<叙述格>→디)이지만 斷定的 末語尾가 된 것이며, ‘-주’는 그것에 相對尊待 形態素 {-우-}가 가미된 語形으로 분석된다고 하였다. 또,

먹엇주(먹엇지요)²⁸⁾

먹어십주(먹엇읍지요)

먹엄십주(먹고 있음지요)

의 語例를 들어 ‘ㅎ주’의 ‘-주’에는 願望의 뜻이 없음을 확인시키고, 이를 意圖法의 논의 대상에서 제외시켜야 한다고 했다. 筆者의 검토에 의하면, 어미 ‘-주’가 動詞에 연결되어 1인칭 주체의 行爲叙述時, 현재는 물론 李男德의 例와 같이 과거의 사

26) 玄平孝(1985), Ibid., pp. 97~100.

27) 李男德(1982), op. cit., p. 35.

28) ‘먹엇주’는 ‘먹엇지’로 해석되어야 한다. 따라서, ‘-우’에는 상대존대의 의미가 없는 것으로 본다.

실인 경우라 해도, 당시의 의도가 개입된 것이므로 /-ㅈ- /을 의도법 어미로, /-우 /를 平叙法 語尾로 분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가₁의도 혹생이주. (그 아이도 학생이지.)
가₂원 사름도 아니주. (그 아이는 사람도 아니지.)
가₃원 잘도 곱주. (그 아이는 참 예쁘지.)

와 같이 ‘-주’가 서술격이나 ‘아니-’ 또는 형용사의 어간에 연결되어 사용될 때, ‘-ㅈ-’은 意圖나 意慾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斷定的 態度를 나타낸다. 따라서, /-주 /를 肯定的 認定을 요구하는 平叙法 語尾를 설정한다.

난 이₁딴서 지들림시크₂라. (나는 여기서 기다리고 있겠네.)
오늘이 보름이라. (오늘이 보름이네.)

위의 語尾 ‘-라’는 의도법 어미 /-ㄹ- /와 평서법 어미 /-아 /로 분석할 수 있다. ‘-라’는 의문법 어미로도 사용되는데, 내림 억양일 때는 平叙文, 오름 억양일 때는 疑問文을 형성한다.

철수 보₁민 오₂죽 화내랴. (철수가 보면 오죽 화를 내겠나.)
그 사₁름 오₂죽 일 잘하₃랴. (그 사람이 오죽 일을 잘하겠나.)

위의 語例에서 어미 ‘-랴’를 분석하기로 한다. 어미 ‘-랴’가 사용되는 문장은 화자가 제삼자의 동작·상태 등에 대하여 매우 확실한 추측을 표시하고자 할 때 나타나는데, 여기에서 추측법 어미 /-ㄹ- /와 평서법 어미 /-아 /를 분석해 낼 수 있다. 이때는 내림 억양을 취하며, 相對者에 대한 의문의 뜻은 없다.

나도 가₁의네 집 알아질₂루₃고. (나도 그 애네 집 알 수 있겠어.)
그₁던 우리만 가₂도 될루₃고. (거기는 우리만 가도 되겠어.)
오늘 비 울루₃고. (오늘 비가 오겠어.)

위의 발화에 나타나는 어미 ‘-르로고’를 분석하여, 可能 또는 推測을 표시하는 추측법 어미 /-르- /을 제외한 평서법 어미 /-로고 /를 얻을 수 있다. /-로고 /는 抑揚을 달리 하여 의문법·감탄법에도 사용되는데 平叙法의 경우 내림 억양을 취한다.

이녀 아들 저되서 놀았서. (당신 아들 저기서 놀고 있어.)
가원 집의서 밥 먹어서. (그 애는 집에서 밥 먹었어.)

위에서 같은 발화도 原語民들 사이에서 흔히 접할 수 있다. 어미 ‘-암서, -어서’로부터 未完了存續相 形態素 /-암스- /과 完了存續相의 形態素 /-어스- /을 분석하여 平叙法 語尾 /-어 /를 얻을 수 있다. 어미 /-어 /가 내림 억양이 아닌 오름 억양을 취하면 의문문을 형성시킨다.

나 학교에 갔다왔. (나 학교에 갔다 왔어.)
나 밥 하영 먹었. (나 밥 많이 먹었어.)

위의 發話는 濟州方言이 지니는 특이한 예라 하겠다. 어미 ‘-안~-언’은 완료상의 형태소 /-안~-언- /과 일치한다.²⁹⁾ 이와 같은 발화가 제주 방언의 원어민들 사이에서 매우 빈번히 사용되며 그 자체로서 문장 종결의 기능을 충실히 수행함에 비추어 /-안~-언 /을 平叙法 語尾로 설정한다. 이 어미도 오름 억양을 취하면 의문문을 형성시킨다.

이번엔 가의가 일등 했덴. (이번에는 그 애가 일등 하였데.)
가의 오늘 오켄. (그 애 오늘 오겠데.)
그 학생 학교에 갔덴. (그 학생 학교에 갔데.)
이 밥 나 먹젠. (이 밥 내가 먹을래.)

29) 회상법 어미 /-안~-언- /과는 의미·기능상 성격을 달리 한다. 따라서, ‘먹언’을 ‘먹언제(먹데)’에서 어미 /-제 /가 생략된 것으로 볼 수 없다.

위의 어례에 나타나는 어미 ‘-덴, -켄, -젠’에서 回想法의 /-ㄷ-/와 意圖法의 /-ㄱ-ㄴ-스-/를 분석해냄으로써 平叙法 語尾 /-엔/을 얻을 수 있다. 이것도 억양을 달리 하여 의문법 어미로 사용된다.

난 친구네 집의 가멘. (나는 친구네 집에 가.)
 이 얘기 말 꼴오멘. (이 얘기 말을 해.)

위와 같은 발화는 年少者나 壯年層에서 별로 격식을 차릴 필요가 없이 흥허물이 없는 사이에서 자주 사용되는 것으로서, 用言의 어간에 平叙法 語尾 /-멘/이 직접 연결되어 사용된다.³⁰⁾ 내림 억양을 취하며, 오름 억양을 취하면 의문문이 된다. 이상과 같은 분석에 의해 파악된 「흥여體」의 平叙法 語尾를 한데 묶어 보면,

/-에ㄴ-게ㄴ-메ㄴ(-아~어)ㄴ-고ㄴ-결ㄴ-얼ㄴ-우ㄴ-주ㄴ-아ㄴ-어ㄴ
 -로고ㄴ(-안~언)ㄴ-엔ㄴ-멘/

과 같다.

Ⅲ.1.3. 「흥서體」의 平叙法 語尾를 찾아 보기로 한다.

이 물은 잘 들읍네다. (이 말은 잘 뵈니다.)
 야원 말 잘 들읍니다. (이 애는 말 잘 듣습니다.)
 가의 말 잘 꼴읍네다. (그 애 말 잘 하데요.)
 밥 잘도 하영 먹읍디다. (밥을 참 많이 먹데요.)
 널 비 오쿠다. (내일 비 오겠습니다.)
 난 아무거나 주는 냥 먹쿠다. (나는 아무거나 주는 대로 먹겠습니다.)
 나 이딴서 글 보암수다. (나 여기서 글 보고 있습니다.)
 난 인치기 밥 먹었수다. (나는 아까 밥 먹었습니다.)

30) 金美京(1987), op. cit., p. 27.

위의 '들읍네다, 들읍니다'의 어미 '-네다, -니다'는 상대 존대 선어말어미 /-네-/과 直說法 語尾 /-네-ㄴ-니-/ 그리고 平叙法 語尾 /-다/로 분석할 수 있다. '끓읍네다, 먹읍니다'의 어미 '-네다, -니다'는 相對尊待 先 語末語尾 /-네-/과 回想法 語尾 /-네-ㄴ-디-/ 그리고 平서법 어미 /-다/로 분석된다. '오쿠다, 먹쿠다'의 어미 '-쿠다'는 각기 추측법과 의도법의 어미 /-쿠-/와 상대 존대 선어말어미 /-우-/ 그리고 平서법 어미 /-다/로 분석할 수 있다. 또, '보ampus, 먹ampus'의 어미 '-ampus, -ampus'는 각기 未完了相의 /-ampus-/ , 完了相의 /-ampus-/에 상대존대 선어말어미 /-우-/ 그리고 平서법 어미 /-다/가 결합된 형태이다. 이상의 분석을 통해 平叙法 語尾 /-다/를 얻는다.

가원 학교에 멩겍수게. (그 애는 학교에 다니고 있습니다.)
 철순 벌써 집의 오랏수게. (철수는 벌써 집에 와 있습니다.)

위의 어미 '-우게'는 반드시 未完了存續相의 /(-ampus-~-ampus-)ㄴ-ampus-/이나 完了存續相의 /(-ampus-~-ampus-)ㄴ-ampus-/과 연결되어서만 사용된다. 여기서 상대 존대 선어말어미 /-우-/를 분석해 내어 平叙法 語尾 /-게/를 얻는다.



자원 집의 감수괘. (저 애는 집에 가고 있습니다.)
 이되 따리민 막 아프우괘. (여기 때리면 아주 아픍니다.)

위의 어미 '-우괘'에서도 같은 방법으로 平叙法 語尾 /-괘/를 분석해 낼 수 있다.

그건 내 하주. (그것은 제가 하지요.)
 애긴 나가 업읍주. (아기는 제가 업지요.)

위의 어미 '-ㅂ주'는 「하여體」의 '-주'와 마찬가지로 1인칭 주체의 행위 서술시에 사용된 것으로서, 상대 존대의 형태소 /-ㅂ-/과 의도법 어미 /-스-/을 분석하여 平叙法 語尾 /-우-/를 얻는다.

그리고 「하여體」와 같은 방법에 의하여, '혹생입주, 아님주, 고옵주' 등으로부터 平叙法 語尾 /-주-/를 얻을 수 있다.

이상과 같은 분석을 통해 얻어진 「흡서體」의 平叙法 語尾를 한데 묶으면,

/-다스-계스-꽤스-우스-주-/

와 같다.

지금까지 濟州方言의 發話에 나타나는 平叙法 語尾를 「하라體」, 「하여體」, 「흡서體」의 셋으로 나누어 考察한 결과를 종합하여 表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形態區分 尊待等級	變 異 形 態
하 라 體	/(-다~-아)스-니스-에스-라스-여스-어스-저/
하 여 體	/-에스-계스-메스(-아~-어)스-고스-결스-일스-우스-주스 -아스-어스-로고스(-안~-언)스-엔스-멘/
흡 서 體	/-다스-계스-꽤스-우스-주-/

Ⅲ. 2. 疑問法

疑問法은 話者가 聽者에게 어떤 사실에 대하여 질문을 하거나 의문을 표시함으로써, 어떤 대답(해답)을 要求하는 樣式의 叙法이다. 이에 사용되는 抑揚은 주로 오름 억양이지만, 문맥에 따라 내림 억양 또는 수평 억양까지도 다양하게 쓰인다.

Ⅲ. 2. 1. 「하라體」의 의문법 어미 중 가장 대표적인 것으로,

는 집의 인척 오느냐?(너는 집에 일찍 오느냐?)
 가의 학교에 가더냐?(그 애 학교에 가더냐?)
 날 비 오느냐?(내일 비가 오겠냐?)
 지네만 잘 놀았느냐?(자기네만 잘 놀고 있더냐?)

등의 /-냐/를 들 수 있다. /-냐/는 直說法的 /-느-/ , 回想法의 /(-아- ~-어-)으-라-으-더-/ , 推測法的 /-코-/ , 未完了相의 /-암-~-엄- / , 完了相의 /-았-~-었- / , 未完了存續相의 /-암시-~-엄시- / , 完了存續相의 /-아시-~-어시- /와 연결되어 사용되어 그 分布가 가장 넓다.³¹⁾ 濟州方言의 경우, /-냐/는 원래 표준어와는 달리 위의 語例처럼 疑問詞가 없는 判定疑問(nexus question)에만 사용됐던 것으로 보인다. 이때, 오름 억양을 취하면 단순한 질문이 되나, 내림 억양을 구사하면 서술 내용에 대한 話者의 부정적 인식이 질문에 內包되게 된다.

는 어디 댕기느니(냐)?(너는 어디 다니느냐?)
 가윈 어느제 오느니(냐)?(그 애는 언제 오느냐?)
 자의 무시젠 코아니(냐)?(저 애가 뭐라고 말하더냐?)
 는 무신거 보았시크니(냐)?(너는 무엇을 보고 있겠냐?)

위의 發話에서 분석되는 의문법 어미 /-니/는 반드시 疑問詞 先行條件에서만 사용되어 說明疑問(wh-question)을 형성시키는데, 이는 濟州方言의 특이한 현상이다. 이때는 반드시 의문사에 강세(accent)를 주고 文尾에서는 내림 억양을 취한다.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濟州方言에 있어서 說明疑問으로 쓰인 의문법 어미 /-니/는 모두 /-냐/로 대치되어 사용되며 抑揚도 /-니/의 경우와 동일하다.³²⁾ 그러나, 의문법 어미 /-냐/가 왔을 때, 선행하는 의문사에 강세를 주지 않고 文尾에

31) 玄平孝(1985), op. cit., p. 116, p. 120.

32) 金美京(1987), op. cit., p. 9.

서 오름 억양을 취하면 判定疑問의 기능을 갖게 되는데, 이와 같은 경우에 내림 억양을 취하면 質問內容에 대한 화자의 부정적 태도를 표현하는 判定疑問이 된다. 濟州方言의 경우, 壯年層 以下の 發話에서는 설명 의문이나 관정 의문에 語尾 /-나 /를 두루 사용하는 경향이 있는 바, 이는 改新波에 의해 語形 統一化가 촉진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³³⁾

이 애긴 말 잘 궂나?(이 아기는 말 잘하느냐?)
 는 무신거 잘 보나?(너는 무엇을 잘 보느냐?)
 ㄹ새 먹곡 또시 먹업나?(금방 먹고 또 먹느냐?)
 는 무신거 보았나?(너는 무엇을 보았느냐?)
 지네만 잘 놀암시나?(자기네만 잘 놀고 있느냐?)
 가의네 밥 먹어시나?(그 애네 밥 먹어 있느냐?)

위의 어미 ‘-나’는 平叙法에서도 사용되는 것으로서, 疑問法의 경우에는 결합시 音韻論的 制約이 없으며, 용언의 어간만이 아니라 未完了相의 /-암-~-엄-/, 完了相의 /-앗-~-엇-/, 未完了存續相의 /-암시-~-엄시-/, 完了存續相 /-아시-~-어시-/와도 연결되어 쓰인다.³⁴⁾ 미완료존속상 또는 완료존속상의 결합 사용시, 어미 /-나/를 취하면 發話時를 기준으로 한 動作主의 행동·상태의 지속 여부를 묻는 것이 되지만, 어미 ‘-나’를 취하면 발화시와는 무관한 특정 상황에서의 동작주의 행동·상태의 지속 여부를 묻는 發話가 된다. 어미 ‘-나’에 의한 발화(文)가 오름 억양을 취하면 判定疑問이 되며, 높오르내림의 억양을 취하면 질문 내용에 대한 화자의 부정적 태도를 나타내게 된다. 의문사가 있는 說明疑問의 경우는 /-니/의 경우와 같은 억양을 취한다. 위의 어미 ‘-나’는 直說法 語尾 /

33) 安秉禧(1965), “後期 中世國語의 疑問法에 대하여”, 「學術誌」 제6집, 建國大, pp. 76~77.

34) 玄平孝(1985), op. cit., p. 120.

金美京(1987), op. cit., p. 10.

“玄平孝는 완료상, 미완료상과의 결합만을 인정하였으나, 金美京은 존속상과의 결합도 예시·설명하고 있다.”

-ㄴ- /과 疑問法 語尾 /-아/로 分析할 수 있다.

제주 방언의 발화에서 흔히 들을 수 있는 것으로,

철순 인척 집의 가샤?(철수는 아까 집에 갔니?)
는 학교에 아니 멩겸샤?(너는 학교에 안 다니고 있니?)

와 같은 형태가 있다. '가샤, 멩겸샤'에서 完了存續相의 /-아시-/와 未完了存續相의 /-엄시-/를 제외한 疑問法 語尾 /-아/를 분석할 수 있다.

나 몬침 카크메 잇당 올다?(나 먼저 갈 테니 이따가 오겠니?)
느 멩 살 먹언다?(너 몇 살 먹었니?)
철순 밥 몬 먹엄다?(철수는 밥 모두 먹고 있니?)

평서법 어미 /-다/와는 달리, 의문법 어미 /-다/는 意圖法 語尾 /-ㄹ- /이나 完了相의 /-안-~-언-/ 또는 未完了相의 /-암-~-엄-/과 연결되어 사용된다. 물론 平叙法의 경우에도 未完了相의 /-암-~-엄-/을 동일한 형태로 취할 수 있다. 그러나, 이때도 실제 발음에 있어서, 평서법 어미의 /t/음이 반드시 /t'/로 硬音化되는데 反하여 의문법 어미의 /t/음은 항상 /d/로 有聲音化된다는 점에 차이가 있다.

疑問法 語尾 /-다/는 중세 국어에서도 나타나는 것으로, 濟州方言의 특이한 예이다.

늑미 무로디 므스글 얻는다?(月釋·一·36)
므슴 病으로 終命 喚다?(月釋·九·36)
네 엇던 헤모로 나를 免케 喚다?(月釋·廿一·55)

濟州方言의 경우, 의문법 어미 /-다/와 동일한 환경에서 어미 /-디/가 隨意的으로 交替되어 사용되는데, 단지 /-다/와는 달리 평서법 어미에서 동일한 형태가 없다는 점만이 틀리다. 또, 意圖法의 /-ㄹ- / 뒤에서

는 어떻 홀티?(너는 어떻게 하겠니?)

처럼 /-티/語尾의 형태로 실현되기도 한다. 이 의문법 어미 /-디/나 /-티/는 각기 /-다/나 /-타/로 隨意交替되어 사용된다.

느네 둘이 성제가?(너희 둘이 형제나?)

이건 야윳거 아니가?(이것은 이 애의 것이 아니냐?)

는 밥 먹음가?(너는 밥 먹고 있냐?)

느네 집은 어되고(가)?(너희 집은 어디냐?)

는 언제 올라갈거고(가)?(너는 언제 올라갈 거냐?)

위와 같은 형태의 發話는 濟州方言의 특이한 例로서, 古語에서의

이 씩리 너희 종가?(月釋·8·94)

엇데 보디 못흥고?(榜嚴·2·71)

와 일치하는 것이다. 이들 語例에서의 ‘-가, -고’는 體言이나, 用言의 名詞形에 직접 연결되어 의문문을 형성시키고 있다. 이 점을 들어 李承旭(1963) 등은 ‘-가, -고’를 疑問添辭로 처리하고 있다.³⁵⁾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나, 이들 형태가 「ᄒ여體」의문법 어미 /-가-고/와 맥을 같이 하는 것으로 인정되므로 일단 「ᄒ라體」의문법 어미로 設定한다. 語尾 /-고/는 의문사 선행시에만 사용되며, 내림 억양을 취하여 說明疑問에 제한 사용된다. /-가/는 判定疑問과 說明疑問에 모두 사용되나, 判定 의문일 때는 오름 억양을, 說明 의문에는 내림 억양을 구분하여 취한다. /-가/가 원래 중세 국어에서와 같이 判定疑問에만 사용되던 것인데, 改新波에 의한 표준어 형태로의 統一化 現象에 의해 說明 의문에도 확대 사용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35) 李承旭(1963), “疑問添辭攷”, 「국어국문학」 제26호, pp. 443~446.

느 오늘 학교에 갈래?(너 오늘 학교에 갈래?)
는 오늘 어디 갈리?(너는 오늘 어디 가겠니?)
느도 오늘 공부 할래?(너도 오늘 공부할래?)

이들 발화는 앞으로 예상되는 行動에 대해 상대자의 意向으로 묻는 것으로서, 의문법 어미 /-라ㄴ-리ㄴ-레/의 앞에는 반드시 意圖法 語尾 /-르-/이 온다. 위의 /-리/語尾와는 달리 용언의 어간 아래 직접 연결되어, 화자 스스로의 自問이나 反意的인 疑問을 나타내는 의문법 어미 /-리/도 있는데,

이걸 어떻 할리?(이것을 어찌 할까?)

의 경우가 그에 해당된다.

느만 혼자 집의 감지?(너만 혼자 집에 가고 있지?)
나신디 전화 안 와났지?.(나한테 전화 안 왔었지?)
자의 잘도 푹닥 하지?(저 애 참 예쁘지?)

위의 語例에 나타는 의문법 어미 /-지/는 서술 내용에 대한 話者의 주관적 판단이 강하게 내포된 것으로서, 주로 내림 억양을 취한다.

철순 어데 가시?(철수는 어디에 갔니?)
는 무싹 먹었시?(너는 무엇을 먹고 있지?)

위와 같은 發話로부터 의문법 어미 /-이/를 분석해 낼 수 있는데, 이 어미는 說明疑問에만 사용된다. 또, 어미 /-이/는 반드시 未完了存續相의 /-암ㅅ-~-엄ㅅ-/이나 完了存續相의 /-아ㅅ-~-어ㅅ-/의 뒤에 연결되어 표현된다. 물론 억양은 내림 억양을 취한다.

이상과 같이, 濟州方言의 「하리體」에 나타나는 의문법 어미를 分析한 결과를 종합하면,

／-나ㄴ-니ㄴ-아ㄴ-다ㄴ-디ㄴ-티ㄴ-다ㄴ-타ㄴ-가ㄴ-고ㄴ-라ㄴ-리ㄴ-레
-지ㄴ-이／

와 같다.

Ⅲ. 2. 2. 「하어체」의 疑問法 語尾를 살펴 보기로 한다.

우리 조케 공빈 잘하는가?(우리 조카 공부는 잘하는가?)
가의 조반은 문 먹었는가?(그 애 아침밥은 모두 먹었는가?)
가의 이제도 그되 살았는가?(그 애 지금도 거기 살고 있는가?)
나가는 길이 어디 이신고?(나가는 길이 어디 있는가?)
자원 문사 정 울었신고?(저 애는 왜 저렇게 울고 있는가?)
어떻 하연 벌써 가신고?(어떻게 해서 벌써 갔는가?)

위의 발화에서 의문법 어미 /-가/와 /-고/를 분석할 수 있다. 이들 어미는 주로 主語가 3인칭일 경우에만 사용된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중세 국어의 疑問法 語尾活用에서 의문사 선행시에는 /-고/를, 의문사가 없을 때는 /-가/를 사용하듯이, 濟州方言의 경우에도 說明疑問에는 /-고/를, 判定疑問에는 /-가/ 語尾가 표준어와는 달리 엄격하게 구분·사용되고 있다는 점이다.³⁶⁾ 단, /-고/의 경우에,

벌써 밥 다 먹었고?(벌써 밥 다 먹었어?)
지금 베곁의 비 왔고?(지금 밖에 비 오고 있어?)

처럼 完了相의 /-았-~-었-/이나 未完了相의 /-았-~-었-/과 연결될 때는 오히려 判定疑問으로 사용된다. 또, /-가/ 語尾가 오름 억양을 취하면 평상

36) 韓榮均(1984), “濟州方言 動名詞 語尾의 統辭機能”, 「國語學」 13집, p. 235.

적인 판정 의문이 되지만 오르내림의 억양을 취하면 서술 내용에 대한 話者의 부정적 견해가 내포된 판정 의문이 된다.

이제 무신거 출거랴?(이제 뭐 할거야?)
나영 이 책 익시크랴?(나하고 이 책 읽고 있겠어?)

위의 발화에 나타난 의문법 어미 /-라/는 앞서 말했듯이 억양을 달리 하여 평서법 어미로도 사용되는 것으로, 의문법의 경우 주로 오름 억양을 취한다.

날랑 콩밥 먹었시카?(나는 콩밥 먹고 있을까?)
가이가 벌써 와시카?(그 애가 벌써 와 있을까?)
가인 무신걸 먹었시코(카)?(그 애는 무엇을 먹고 있을까?)
우리 무신거 하명 놀코(카)?(우리 무엇을 하면서 놀까?)

위의 語例에 나타는 語尾 '-카, -코'는 각기 意圖法 또는 推測法 語尾 /-코- /와 의문법 어미 /-아/, /-오/로 분석할 수 있다. 의문법 어미 /-아-오 /의 용법은 앞서 설명한 /-가-고 / 語尾와 대동소이하다.

가원 어디 가서?(그 애는 어디 갔어?)
가원 집의서 밥 먹었서?(그 애는 집에서 밥 먹고 있어?)

위의 의문법 어미 /-어/도 앞서 검토한 바와 같이 平叙·疑問 同型의 語尾로서, 의문법의 경우 오름 억양을 취한다. 또,

나사 가의네 집 알아질로고?(나야 그 애네 집 알 수 있겠어?)
그되 우리만 강 필로고?(그 곳에 우리만 가서 되겠어?)

에 사용된 의문법 어미 /-로고/ 역시 平叙法·感嘆法에도 동일한 형태로 사용되는데, 의문법에 사용될 경우에는 서술 내용에 대한 화자의 부정적 태도를 강하게 표

출시키며 높으르내림의 억양을 취한다.

는 학교에 갔다왔?(너는 학교에 갔다 왔어?)
철순 밥 문만 먹었?(철수는 밥 모두 먹었어?)

위의 發話에 나타나는 의문법 어미 /-안~-언/에 대해서도 「하어體」平叙法 語尾의 설명시 언급되었다.

가의 이번에 몇 등 하었?(그 애 이번에 몇 등 했데?)
철수 어느제 오젠?(철수 언제 오겠데?)
그 밥 누가 먹젠?(그 밥 누가 먹을래?)

위에 사용된 의문법 어미 /-엔/도 平叙·疑問 同型으로서, 의문법의 경우 判定 疑問에서는 오름 억양을, 說明疑問에서는 내림 억양을 취한다.

어디 가멘?(어디 가니?)
너 돈 가진 거 이시멘?(너 돈 가진 거 있니?)

平叙法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疑問法 語尾 /-멘/도 흥허물 없이 가까운 사이에 사용되며, 의문사 선행 여부와 관계없이 오름 억양을 취하면 判定疑問을 형성시키고, 의문사 선행시에 오르내림의 억양을 취하면 說明疑問이 된다.

지금까지 분석한 「하어體」 의문법 어미를 한데 모아 정리하면,

/-가_스-고_스-라_스-아_스-오_스-어_스-로고_스(-안~-언)_스-엔_스-멘/

와 같다.

Ⅲ.2.3. 이제 「하어體」의 疑問法 語尾를 분석하기로 한다.

딸만 돌이(우)꽂(꽂)?(딸만 돌입니까?)
 제시(우)꽂(꽂)?(계십니까?)
 무신거 먹으멍 삶이(우)꽂(꽂)?(무얼 먹으면서 사십니까?)

위의 發話에 사용된 「흡서體」 의문법 어미 /-꽂-꽂/은 先語末語尾의 叙法 形態素나 動作相의 形態素와 결합하지 않으며, 상대 높임 선어말어미 /-우- / 아래 後接하여 쓰이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오십데가(강)?(오셨습니까?)
 어느제 다녕 읍디가(강)?(언제 다녀서 왔습니까?)
 무신거 익으쿠가(강)?(무엇을 읽으시겠습니까?)
 널 비 오쿠가(강)?(내일 비 오겠습니까?)
 어되 감수가(강)?(어디 가십니까?)
 조반 먹었수가(강)?(아침 먹었습니까?)
 가의 집의 와십데가(강)?(그 애 집에 와 있습니까?)

「흡서體」 의문법 어미 중에서, 動作相의 形態와 연결· 사용되는 것은 위의 /-가 ㅅ-강/語尾 뿐이다. 의문법 어미 /-가ㅅ-강/은 未完了存續相의 /-암ㅅ-~ -엄ㅅ- /, 完了存續相의 /-앗ㅅ-~-엇ㅅ- /에 상대 높임의 /-우- /가 결합된 형태 아래에 연결· 사용된다. 또, 이 어미들은 回想法 語尾 /-데-ㅅ-디- / 아래나 또는 意圖法·推測法 語尾 /-코- /에 상대 높임의 /-우- /가 결합된 '-쿠-'에 직접 연결되어 사용된다.³⁷⁾

나 밧되 강 누물 행 읍네까(강)?(나 밧에 가서 누물 해 가지고 읍니까?)
 계민 어느제 읍니까(강)?(그러면 언제 읍니까?)

위의 語例에 나타나는 의문법 어미 /-까ㅅ-강/은 반드시 直說法 語尾 /-네

37) 玄平孝(1985), op. cit., p. 122.

-ㄴ-ㄴ- /와 결합되어 사용된다.

「흡서體」의 의문법 어미는 매우 간단한데, 「흡여體」의 의문법 어미 뒤에 終止補助詞³⁸⁾ /-마씀ㄴ-마섬 /을 붙여 「흡서體」로 사용하는 바, 이는 濟州方言의 큰 특징의 하나이다. 이때는 대개 反問의 의미를 지니고 오름 억양을 취한다.

「흡서體」의 疑問法 語尾를 정리하면,

/-과ㄴ-광ㄴ-가ㄴ-강ㄴ-까ㄴ-깡 /

과 같다.

이상과 같이 濟州方言의 發話에서 나타나는 疑問法 語尾를 존대 등급에 따라 셋으로 나누어 考察한 결과를 종합하여 表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形態區分 尊待等級	變 異 形 態
흡 라 體	/-냐ㄴ-니ㄴ-아ㄴ-다ㄴ-디ㄴ-티ㄴ-타ㄴ-가ㄴ-고ㄴ -라ㄴ-리ㄴ-레ㄴ-지ㄴ-이 /
흡 여 體	/-가ㄴ-고ㄴ-라ㄴ-아ㄴ-오ㄴ-어ㄴ-로고ㄴ(-안~연)ㄴ-엔 ㄴ-멘 /
흡 서 體	/-과ㄴ-광ㄴ-가ㄴ-강ㄴ-까ㄴ-깡 /

Ⅲ. 3. 命令法

命令法은 화자가 상대방에게 어떤 行動을 취할 것을 요구하는 표현양식의 叙法으로서, 주로 높고 강한 내림 억양을 사용한다. 命令文은 그 특성상, 원칙적으로 제2인칭을 주어로 하는 對稱文의 형식을 취하며, 주어는 대개 省略되거나 呼格化된다. 또한 현장성이 지극히 강하기 때문에, 선어말어미에 의한 직설법, 회상법, 추측법, 의

38) 이를 添辭(particle)로 규정하기도 하나, 本攷에서는 終止補助詞로 보았다. 이에 대해서는 뒷부분에서 검토하기로 한다.

도법 등이 나타날 수 없으며, 동작상의 경우도 매우 制限되어 未完了存續相과 完了存續相만이 표현 가능할 뿐이다.

Ⅲ. 3. 1. 「하라體」에 해당되는 命命法 語尾는 /-라/ 뿐이다.

무신 말 하다가 들었 오라. (무슨 말을 하는가 들어서 오너라.)

모든 먹었 가라. (모두 먹어서 가거라.)

는 이되서 놀라. (넌 여기서 놀아라.)

위의 발화에서 보듯이 표준어 「해라體」 명령법 어미가 /-아라~-어라/인데 대해서, 濟州方言의 「하라體」 명령법 어미는 先行母音에 관계없이 ‘-아~-어-’가 결부되지 않은 /-라/가 사용되며, ‘오다, 가다’가 붙은 用言의 경우에도 현대 표준어와는 달리 ‘-거라, -너라’의 불규칙 활용이 일어나지 않는다. 이런 점은 古語의 殘在를 보여 주는 本島方言의 특이한 現象이라고 할 수 있다. 또, 否定命命文의 경우에 있어서도, 표준어의 ‘-지 마라’가 濟州方言에서는 ‘-지 말라’의 형태로 발화된다. 「하라體」의 경우, ‘올라시라, 보아시라, 먹어시라’나 ‘올라시라, 보아시라, 주어시라’와 같은 표현도 原語民들의 발화에서 자주 나타나는데, 이들은 각기 未完了存續相을 나타내는 ‘-람시-, -암시-, -엄시-’와 完了存續相을 나타내는 ‘-라시-, -아시-, -어시-’ 등의 선어말어미가 결부된 것으로, 命命法 語尾는 /-라/이다.

이상의 분석을 통해, 「하라體」 명령법 어미로 /-라/를 얻을 수 있다.

Ⅲ. 3. 2. 「하어體」의 명령법 어미는 비교적 복잡한 편이다.

濟州方言의 「하어體」 명령법 어미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은 /-아~-어/이다.

지널랑 바눔에 실 췌어. (자널랑 바눔에 실 췌어.)

이딜 잘 봐. (여기를 잘 봐.)

위의 어례에서와 같이 /-아~-어/ 어미는 동사의 어간에 직접 연결되어 쓰이

며, 선행 모음에 따라 음운론적으로 제약을 받는 異形態이다. 이는 표준어의 非格式體 중 「해體」의 /-아~-어/와 본질적으로 유사한 형태이지만, 표준어의 경우 주로 「해라體」의 대상에게 쓰이는데 대하여, 濟州方言의 경우는 주로 「하계體」의 대상에게 사용된다는 점에 차이가 있다. 또,

흔저 차에 올람서. (어서 차에 오르고 있게.)

나 올 띄꺾장 이 책 익엄서. (내가 올 때까지 이 책을 읽고 있게.)

흔저 차에 올라서. (어서 차에 올라 있게.)

송편이나 하나 먹어서. (송편이나 하나 먹어 있게.)

의 발화에서, 미완료 존속상의 /-암ㅅ-~-엄ㅅ-/과 완료 존속상의 /-아ㅅ-~-어ㅅ-/을 분석하여, 명령법 어미 /-어/를 얻을 수 있다. 이때의 /-어/는 앞의 '꽤어, 봐'의 경우와는 달리 先行母音에 의한 音韻論的 制約을 받지 않음은 물론, 비교적 상대방에 대한 尊重의 程度도 전자보다 크게 나타남에 비추어 /-아~-어/語尾와는 별개의 것으로 設定할 필요가 있다.

재계 바늘에 실 꿰어계. (빨리 바늘에 실 꿰어.)

이넬 잘 봐계. (여기들 잘 보계.)

위와 같은 발화도 매우 쉽게 접할 수 있는데, 이것은 앞의 /-아~-어/語尾에 '-계'가 결합된 것이다. 여기서 명령법 어미가 어떤 것인가를 밝히기에 앞서 우선 濟州方言의 '-계'의 기능에 대한 諸說을 검토하기로 한다. 朴用厚(1960)는 '-계'를 強勢接辭로 분류하고,

밥 먹엄서계. (밥을 먹고 있네.)

밥 먹으라계. (밥을 먹으라니까.)

밥 먹어계. (밥을 먹계.)

밥 먹당계. (밥을 먹다가.)

흔저계. (어서)

나도계. (나도)

등의 語例를 들어, “풀이씨의 마침(終止)·이음(接續)의 씨글(語尾), 어찌씨, 토씨 아래에서 윗 말의 뜻을 힘있게 한다”고 하였다.³⁹⁾ 이에 대해 玄平孝(1985)는 ‘-계’를

- ① 자기보다 낮은 사람이나 친구에게 무슨 동작을 시키는 종결어미.
- ② 자기보다 낮은 사람이나 친구에게 함께 하기를 권하는 종결어미.
- ③ 용언의 어간에 붙어서, 화자가 상대자에게 시켜서, 계삼자 또는 화자 자신의 행동을 용허·방임하게 하는 뜻을 나타내는 연결 또는 종결어미
- ④ 용언 어간에 붙은 선어말어미 ‘-암수-, -엄수-, -염수-, -람수-, -앗수-, -엇수-, -엿수-, -랏수-’ 등에 연결되어서, 「합쇼」할 자리에 그 사실을 인정하게끔 나타내는 종결어미.

등으로 설명하고 있는 바,⁴⁰⁾ 특히 위의 ①과 같은 판단에 따라, ‘먹계’의 예를 들어 「먹여體」 명령법 어미로서 /-계/를 설정하였다.⁴¹⁾ 그러나, 필자의 견해로는 이를 인정할 수 없다. 그 이유는, 玄平孝(1985)가 /-계/를 「먹여體」의 명령법 어미로 봄과 동시에 위의 ②에서와 같이 「먹여體」의 請誘法 語尾로도 사용되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으나, 실제 原語民들의 발화에 있어서 청유법의 경우에는 /-계/ 단독으로만 표현되지만 命令法에서는 반드시 /-아계~-어계~-여계/의 형태로 나타나기 때문이다. ‘-계’는 이상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표준어의 /-계/와는 그 성질이 판이하게 다른 濟州方言 特有的의 것으로서, 그 기능 또한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보다 종합적인 고찰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 ① 밥 먹으쿠다계. (밥을 먹겠습니다.)
- ② 들사 붉아계?(달이야 밝겠나?)
- ③ 돌이 춤 붉안계. (달이 참 밝던데.)

39) 朴用厚(1960), 「濟州方言研究」, 동원사, pp. 408~409.

40) 玄平孝(1985), op. cit., p. 498.

41) _____(1985), Ibid., p. 124.

語例 ①의 경우는, 밥을 먹겠다는 사실을 강조하여 상대방에게 인정하도록 하면서 자신의 不滿을 나타내고 있으며, ②는 달이 밝을 리가 없다는 사실을 強調하여 상대가 인정하도록 하고 있고, ③의 경우도 자신의 경험을 강하게 표현함으로써 상대방이 자신의 意見에 따라 오도록 유도하고 있다. 이상의 語例와, 앞서 인용한 朴用厚(1960)의 어례 등을 검토한 결과, 청유법 어미 /-게/를 제외한, 濟州方言의 ‘-게’는 대부분 서술 내용에 대한 강조와 상대방의 인정을 促求함은 물론, 상대방의 태도에 대한 불만을 표시한다고 판단된다. 또, ‘-게’가 그와 같이 사용된 경우에는 주로 二重方向抑揚인 ‘높오르내림(High Rise Fall)’의 억양이 쓰인다. 「하여體」 명령법 어미 /-아게~-어게/는 ‘-게’가 결합됨으로써, /-아~-어/와는 달리, 화자가 상대방에게 不滿을 나타내며 강하게 행동을 촉구함과 아울러, 후자의 경우보다 「하계體」의 표현이 더욱 뚜렷해진다는 점에 비추어, 필자는 /-아게~-어게/를 「하여體」의 명령법 어미로 設定한다.⁴²⁾

조심하영 가자. (조심해서 가게나.)

조반일랑 먹엄시자. (아침밥일랑 먹고 있게나.)

위와 같은 발화는 주로 壯年層 이상의 남자들 사이에서 사용되는데, ‘가자, 먹엄시자’로부터 명령법 어미 /-자/를 분석해 낼 수 있다. 이는 濟州方言의 독특한 표현 양식으로서, 화자가 同年輩나 年下者를 禮遇할 때에 사용되며, 주로 수평 억양을 취한다.

흔저 오심. (어서 와요.)

하영 먹으심. (많이 먹어요.)

위와 같은 발화도 제주 방언의 독특한 형태로서, 주로 부녀자들 사이에서 많이 나타난다. 이것은 「하여體」의 명령법 중예거 가장 상대방을 존중하는 표현 양식으로서,

42) 「하라體」의 ‘-라게’에 後接된 ‘-게’는 ‘-게’의 일반적 의미 기능만을 지니는 것으로 보아, 명령법 어미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標準語의 경우 「하오體」에 해당된다. 여기에서 명령법 어미 /-심/을 얻을 수 있다.

이상에서 얻어진 「하어體」의 명령법 어미를 한데 묶어 보면,

/(-아~-어)ㄴ-어ㄴ(-아게~-어게)ㄴ-자ㄴ-심/

들과 같다.

Ⅲ. 3. 3. 「흡서體」의 命令法으로서

이되 오랑 구경 하당 갑서. (이리 와서 구경하다 가십시오.)

밥 먹엄십서. (밥을 먹고 계십시오.)

흔저 차에 올람십서. (어서 차에 오르고 계십시오.)

와 같은 발화를 자주 들을 수 있다. 여기에서 동사 어간이나, 미완료 존속상을 나타내는 /(-암시-~-엄시-)ㄴ-람시-/ 또는 완료 존속상을 나타내는 /(-아시-~-어시-)ㄴ-라시-/ 등과 연결되어 쓰이는 '-ㅂ서'를 추출해 낼 수 있다. 여기에서 /-ㅂ-/은 相對尊待의 形態素이므로, 명령법을 나타내는 것은 '-서'임이 분명하다. 그러나, '-서'만으로는 명령법 어미로 사용되지 않음은 물론이요, 상대자에 대한 존대의 의미 또한 표시할 수 없다는 사실에 비추어, 濟州方言의 「서體」 명령법 어미로 /-ㅂ서/를 설정한다. 그리고,

하나 상 갑서게. (하나 사 가지고 가십시오.)

이거 훗술 잠암십서게. (이것을 잠깐 잡고 계십시오.)

와 같은 발화에서 '-ㅂ서게'의 형태를 볼 수 있는데, 이때 '-게'를 명령법 어미의 일부로 보느냐 하는 문제가 제기된다. 이 경우도 「하라體」의 명령법 '-라게'와 마찬가지로 상대방의 행동을 강하게 促求하는 것 이외의 다른 기능이 없어, 「하어體」의 /-아게~-어게/와는 그 쓰임이 다른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위의 '-게'

를 濟州方言에서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終止補助詞로 처리하여, 「흐서體」 명령법 어미는 /-하서/ 하나 뿐인 것으로 본다.

이상과 같은 분석을 통해 설정된 명령법 어미를 尊待等級에 따라 분류·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形態區分 尊待等級	變 異 形 態
하 라 體	/-라/
하 여 體	/(-아~-어)ㄴ-어ㄴ(-아게~-어게)ㄴ-자ㄴ-십/
흐 서 體	/-하서/

Ⅲ. 4. 請誘法

請誘法은 화자가 청자에게 어떤 행동을 자신과 함께 취할 것을 要請하는 표현 양식으로서, 話者 자신과 聽者를 포함하는 일인칭 복수 대상에 대한 특수한 명령의 형태라 할 수 있다. 이 또한 現場性이 지극히 강하기 때문에 명령법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선어말어미에 의한 直說法, 回想法, 推測法, 意圖法 등이 나타날 수 없으며, 동작상의 경우 역시 매우 제한되어 未完了存續相과 完了存續相만이 표현 가능할 따름이다. 請誘文은 주로 내림 억양 또는 수평 억양을 사용한다.

Ⅲ. 4. 1. 「하라體」 請誘法 語尾는 /-자/ 하나 뿐이다.

- 재계 가자. (빨리 가자.)
- 먼저 감시자. (먼저 가고 있자.)
- 먼저 가시자. (먼저 가 있자.)

위와 같은 發話에서 「하라體」 청유법 어미 /-자/를 분석할 수 있는데, 「하여體」

명령법어미 /-자/와는 존재 등급에 의해, 原語民들이 정확히 구분하여 사용하고 있다. 그런데,

너도 혼되 글라. (너도 함께 가자.)
자네도 혼되 글어. (자네도 함께 가세.)
자네도 ㅁ찌 먹자. (자네도 같이 먹세.)
자네도 혼되 글어게. (자네도 함께 가세.)
혼되 글으심. (함께 가세.)
혼되 글읍서. (함께 가시지요.)

와 같은 발화도 흔히 들을 수 있다. 이상의 발화는 각기 「하라體」, 「하여體」, 「흡서體」의 명령법 어미가 사용되었으면서도 의미상으로는 請誘의 뜻을 지니고 있는 것들이다. 이런 예는

나도 같이 가.
우리 이야기 좀 해.
같이 들지.

와 같이 標準語에서도 쉽게 찾을 수 있다. 그러나, 筆者는 이들이 선행하는 부사어나 語調 등에 의해 淸유의 뜻을 지니게 된 것이며, 어미 자체에는 淸유의 의미가 없는 것으로 보아, 이들을 淸유법 어미에 포함시키지 않기로 한다.

위와 같은 분석을 통해 「하라體」 淸유법 어미 /-자/를 얻는다.

Ⅲ. 4. 2. 「하여體」의 請誘法 語尾로,

이젤랑 집의 가게. (이젤랑 집에 가세.)
밥이나 혼저 먹엄시게. (밥이나 어서 먹고 있으세.)
뚜껍일랑 더꺼시게. (뚜껍일랑 덮어서 있으세.)

의 /-게/를 들 수 있다. 淸유법 어미 /-게/는 「하여體」의 명령법 어미 /-아

게~어게/와는 달리 그 앞에 ‘-아~-어’가 結付되지 않으며, 本島 方言 特有的 형태라 할 수 있다. /-게/語尾를 사용하는 청유법의 발화는 주로 젊은 층의 原語民들 사이에서 이루어진다. 또한, 40代 이상의 原語民 사이에서는 주로

이젤랑 집의 가주. (이젤랑 집에 가세.)
 밥이나 혼저 먹엄시주. (밥이나 어서 먹고 있으세.)
 두경일랑 더꺼시주. (뚜경일랑 덮어서 있으세.)

와 같은 형태의 발화가 사용된다. 이는 /-게/語尾를 사용한 전자의 경우보다 비교적 점잖은 표현으로서, 이들로부터 「하여體」 청유법 어미 /-주/를 얻을 수 있다. 또, /-주/와 동일한 상황에서 화자에 따라 隨意的으로 선택되어 사용되는 /-취/도 원어민들의 발화에서 들을 수 있다.

이상에서 분석한 「하여體」의 請誘法 語尾를 한데 묶으면 다음과 같다.

/-게^ㄴ -주^ㄴ-취 /

Ⅲ. 4. 3. 「흡서體」의 請誘法 語尾로는,

이 팡 우퇴 아집주. (이 섬돌 위에 앉읍시다.)
 어땡 혼나 밤십주. (어떻게 하는가 보고 있읍시다.)
 이 팡 우퇴 아자십주. (이 섬돌 위에 앉아 있읍시다.)

의 語例에서 나타나는 ‘-ㅂ주’를 들 수 있는데, 「하여體」와 마찬가지로 ‘갑취, 더 끄취’ 등과 같이 ‘-취’의 形態로도 표현된다. ‘-ㅂ주’와 ‘-ㅂ취’에서 /-ㅂ-/는 相對尊待 先語末語尾이며, 語尾 /-주^ㄴ-취/ 단독으로도 청유법 어미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있음에 비추어 「흡서體」의 청유법 어미로 /-주^ㄴ-취/를 설정한다. 또,

이젤랑 혼저 집의 갑주마썸. (이젤랑 어서 집에 가십시오.)

이되 사계마씀. (여기 섭시다.)

이되서 구경하주마씀. (여기서 구경하십시다.)

와 같은 발화도 흔히 접할 수 있는데, 이는 「하여體」 또는 「흡서體」의 請誘法 語尾 뒤에 ‘-마씀’이 첨부되어 사용된 형태이다. ‘-마씀’은 상대 존대의 형태소로서 위의 어례의 경우 「흡서體」의 ‘-하주’에 첨부되어 존대의 뜻을 倍加시키고 있으며, 「하여體」의 /-계-주/에 첨부되어서는 그 존대 등급을 「흡서體」로 上向시키고 있다. ‘-마씀’은 標準語의 ‘-요’에 해당하는 것으로, 玄平孝(1985)는 ‘-마씀’을 對者尊待의 形態素라 규정하고 方言의 發話에서 語詞의 末尾에 添付되는 ‘-마씀, -계, -양, -예, -이’ 따위들을 「添辭」라 지칭했다.⁴³⁾ 또, 朴用厚(1960)는 이를 「힘 주는 씨가지(強勢接辭)」로 분류하고 그 기능을,

① 풀이씨의 베품꼴(叙述形) 및 물음꼴(疑問形)의 예사나춤 마침씨끝(普通卑稱 終止語尾), 꺾임꼴(請誘形)의 높임 마침씨끝(尊稱 終止語尾), 검목법(資格法)의 둘째 어찌꼴(第二副詞形) 「계», 이음씨끝(接續語尾), 어찌씨, 토씨, 이음씨 아래에서 윗 말의 뜻을 힘 있게 하고,

② 풀이씨의 베품꼴(叙述形) 및 물음꼴(疑問形)의 높임(尊稱) 및 아주나춤(極卑稱) 마침씨끝(終止語尾) 아래에서 되물음(反問)의 뜻을 나타내고,

③ 풀이씨의 씨끝(語尾) 아래에서 토씨 「인·잉」과 함께 올 적에는 베품(叙述)과 물음(疑問)의 뜻을 나타낸다. 「인」은 지난적, 「잉」은 올적을 나타냄

라 설명하였다.⁴⁴⁾ 필자는 이들의 견해를 종합하여, ‘마씀’이 상대 존대의 형태소로서 윗 말의 내용을 강조하거나, 反問 또는 叙述 내지는 疑問의 뜻을 첨가시키는 기능을 지닌 것으로 본다. 또 語末語尾의 뒤에 語末語尾가 다시 올 수 없다는 文法的 常識과 표준어의

오늘은 달도 참 밝습니다그려.

이것 좀 같이 들어오.

43) 玄平孝(1985), op. cit., p. 69.

44) 朴用厚(1960), op. cit., p. 408.

더 빠르지요?

이건 제 것입니다.

와 같은 어례에서 나타나는 ‘그러, 요’처럼 반드시 문장의 末尾에 첨부되어서 어떤 의미를 덧붙인다는 점에 비추어 이를 「終止補助詞」로 규정한다. ‘마씀’ 이외에 方言의 文章 末尾에 나타나는 ‘게, 양, 이’ 등도 모두 「終止補助詞」라 지칭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나, 이에 대한 考察은 일단 이후의 작업으로 미룬다.

이상과 같은 검토·분석을 통해 濟州方言 「흡서體」의 청유법 어미로 /-주ㅅ-취/를 얻는다.

지금까지 얻어진 청유법 어미를 존재 등급에 따라 分類·整理하면 다음과 같다.

形態區分 尊待等級	變	異	形	態
하 라 體	/-자/			
하 여 體	/-계ㅅ-주ㅅ-취/			
흡 서 體	/-주ㅅ-취/			



Ⅲ. 5. 感嘆法

感嘆法은 話者가 마음에서 느낀 어떤 감동을 그대로 드러내는 表現樣式의 叙法으로서, 내림 억양이나 수평 억양으로 표현되나 주로 윗내림(Higher Fall)의 語調로 나타난다. 감탄법은 서법 중에서 意圖性이 가장 적으며, 감정의 說明이 아닌 그대로의 發露이므로 보통 짧고 간결한 表現이 많다.⁴⁵⁾ 감탄법은 화자가 청자에게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고, 獨白의 성격으로 발화되지만, 실제로 청자가 없이는 말해지기가 어렵다. 또, 平叙法이나 疑問法도 語調에 변화를 주면 感嘆의 뜻을 표현할 수 있

45) 金敏洙(1980), op. cit., p. 295.

으나, 이를 감탄법에 포함시키지 않고, 일정한 形態를 취한 것만을 감탄법으로 다룬다.⁴⁶⁾

濟州方言의 감탄법 어미에서는 「흡서體」에 해당되는 것이 나타나지 않는 것이 특징인데, 표준어의 「하오體」의 감탄법 어미 /-군요-로군요/에 대응되는 어미가 濟州方言에는 없다.

Ⅲ. 5. 1. 「하라體」의 감탄법 발화를 살펴보면,

자원 공비만 하염고나! (저 애는 공부만 하는구나!)
재계도 먹는구나! (빨리도 먹는구나!)
잘도 재계 오랏구나! (잘도 빠르게 왔구나!)
잘만 곧압서고나! (잘만 말하고 있더구나!)

와 같은 語例를 들 수 있다. ‘하염고나’에서 동사 어간 /하- /와 未完了相의 /-염- /을 분석한 결과 /-고나 /를, ‘먹는구나, 오랏구나’에서는 동사어간 /먹-, 오- /와 연결된 直說法 語尾 /-는- /과 完了相의 /-랏- /을 각각 분석해 낸 결과, 감탄법 어미 /-구나 /를 얻는다. 또, ‘곧압서고나’에서도 동사 어간 /곧- /과 미완료 존속상의 /-압시- /, 회상법 어미 /-어- /를 분석하여 감탄법 어미 /-고나 /를 추출해 낼 수 있다. 「하라體」의 감탄법 어미인 /-고나 /와 /-구나 /는 話者에 의해 隨意的으로 선택·사용되는 변이 형태로서 비교적 청자에 대한 의식이 담겨 있다.

이젠 느도 학교에 멩길로고나(냥)! (이젠 너도 학교에 다니겠구나!)
어멍 오난 좋을로고나(냥)! (어머니가 와서 좋겠구나!)
잘도 좋은 책이로고나(냥)! (잘도 좋은 책이로구나!)
사름도 아니로고나(냥)! (사람도 아니로구나!)
맛 존 사과로고나(냥)! (맛 좋은 사과로구나!)

46) 감탄문이 간접 인용되면 평서문과 동일한 형태가 되나, 이때는 그 감탄적 요소 또한 상실됨에 비추어, 평서법과 구별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위와 같은 發話로부터 감탄법 어미 /-로고나 ㄴ-로고낭/을 얻을 수 있다. 이 어미는 '땡길로고나 좋을로고나'의 경우처럼 推測法 語尾 /-르-/에 後接되거나, 동사·형용사의 어간은 물론 받침없는 체언 또는 서술격 조사의 어간에 직접 연결되어 사용된다. 이는 '이다, 아니다'와만 결합되는 標準語와 다른 濟州方言의 특징이라 할 수 있다.

표준어의 경우, 주로 1인칭 주체 서술시에 형용사에 연결되어 청자를 거의 고려하지 않은 獨白의 형태로 사용되는 어미 /-어라 ㄴ-어/와 대응되는 濟州方言의 /(-아라~-어라) ㄴ(-아~-어)/는 感嘆의 뜻을 지니는 平叙法 語尾로 처리한다. 이상과 같은 분석을 통해 「하라體」의 感嘆法 語尾로,

/-고나 ㄴ-구나 ㄴ-로고나 ㄴ-로고낭/

을 設定한다.

Ⅲ. 5. 2. 「하러體」의 發話에서,

잘도 고운 사름이로고! (참 예쁜 사람이로군!)

사름도 아니로고! (사람도 아니로군!)

하영도 먹음이로고! (많이도 먹는군!)

와 같은 어례도 쉽게 접할 수 있다. 이때의 감탄법 어미는 /-로고/로서, 받침없는 體言의 뒤에 직접 연결되거나 叙述格 助詞의 어간 또는 형용사 '아니다'의 어간 뒤에 연결되어 사용된다. /-로고/語尾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平叙·疑問·感嘆法의 同型 語尾로서 抑揚이나 文章 內部的 통사적 관계에 의해 叙法을 구분해야 한다. 감탄법의 경우에는 주로 윗내림의 억양을 취하며, 대개 감탄사의 '아주, 매우' 등의 부사와 어울려 표현된다. 또 서술 내용이 대부분 발화시의 現在 狀況에 관한 것이라는 점이 다르다고 할 수 있다.

이상의 검토와 분석에 의해 設定된 濟州方言의 感嘆法 語尾를 그 尊待等級에 따라 분류·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形態區分 尊待等級	變 異 形 態
하 라 體	/-고나ㄴ-구나ㄴ-로고나ㄴ-로고남/
하 여 體	/-로고/

IV. 結 論

濟州方言은 音韻이나 語彙에 못지 않게 그 叙法體系에 있어서도 현대 표준어와는 다른, 특이한 樣相을 많이 지니고 있다. 本攷에서는 우선 語末語尾에 의한 濟州方言의 叙法體系를 尊待等級에 따라 「하라體」, 「하여體」, 「흡서體」로 구분하여 살펴 보았다. 또한 談話語의 형태인 방언의 성격에 비추어, 형태소만이 아닌 抑揚에 의한 서법의 변동에 대해서도 검토하고자 하였다. 이제, 本攷에서 考察한 내용을 종합·요약하여 結論으로 삼는다.

1. ‘-나’語尾는 표준어의 경우 의문법에서만 사용되나, 濟州方言에서는 평서법과 의문법에 모두 사용된다. 제주방언의 경우, 평서법 어미 ‘-나’는 용언의 어간 말음이 자음일 때에만 제한적으로 직접 연결되어 사용되지만, 의문법 어미로 쓰일 때는 音韻論的 制約이 없이 선어말어미와도 연결되어 사용된다.

2. 표준어에서 평서법 또는 의문법에 사용되는 ‘-르거야’ 등이 濟州島의 年少者層의 발화에서는 語尾가 생략된 ‘-르거’의 형태로 쓰여진다.

3. ‘-아라~-어라’語尾가 표준어에서는 動詞에 연결되어 명령법을, 形容詞에 연결되어서 감탄법을 형성하는 것과는 달리, 濟州方言에서는 과거 회상의 평서법 어미로만 사용되며, 동사나 형용사와 모두 결합·사용되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

4. 「하라體」 평서법 어미 /-계/는 반드시 回想法의 /(-안-~-언-)/의 -란- /과 결합되어야 하는 형태론적 제약을 받으며, 높오르내림(High-Rise-Fall)의 억양을 취하면, 화자의 판단에 대한 상대자의 肯定的 認定을 강요하는 의미를 지니게 된다.

5. /-메/語尾는 반드시 용언의 어간에 직접 연결되어야만 평서법을 형성시키며, 연결어미로 사용될 때는 항상 回想法, 意圖法이나 未完了存續相 또는 完了存續相의 형태소와 결합되어 명령문이나 청유문을 필요로 한다.

6. 語尾 /-아~-어/는 平叙·疑問·命令法의 同型 形態素로서, 平叙法일 때는 1·3인칭의 주체 서술시, 命令法일 때는 2인칭 주체 서술시에 내림 억양(Falling

Tone)을 취하며, 疑問法에서는 오름억양(Rising Tone)을 취한다.

7. 語尾 /-고/도 평서·의문법의 同型 形態素인데, 평서법은 내림 억양을, 의문법은 높오르내림 억양을 취한다.

8. 語尾 /-로고/도 평서·의문·감탄법에 두로 사용된다. 평서법에서는 내림 억양을, 감탄법에서는 윗내림(High Fall) 억양을 취하는데, 의문법에서는 높오르내림 억양을 취하여 서술 내용에 대한 話者의 否定的 態度를 표출한다.

9. 語尾 ‘-아다~-엄다’ 역시 平叙·疑問法의 同型 語尾인데, 의문법일 때는 /-다/의 /t/음이 /d/로 유성음화되고, 평서법일 때는 /다/의 /t/음이 /t/로 경음화된다. 특히 疑問法 語尾 /-다/의 사용은 中世國語와 같은 濟州方言上 特徵이다.

10. 疑問法의 경우, 의문사 선행시에 의문사에 강세(accent)를 주고 文尾를 낮추면 說明疑問(wh-question)이 되고, 의문사에 강세가 없이 文尾에서 오름 억양을 취하면 判定疑問(nexus question)이 되는 것은 표준어와 동일하다.

11. 濟州方言의 文章 末尾에 나타나 일정한 의미를 첨가하는 ‘게, 양, 예, 이, 마 씬’ 등을 「終止補助詞」라 규정한다.

12. 濟州方言 疑問法 活用 의 가장 큰 특징은 중세 국어의 경우처럼 설명 의문과 판정 의문에 사용되는 어미가 비교적 엄격히 구분된다는 점이다. ‘-고, -디, -니, -이, -코(-오)’는 반드시 설명 의문에 그리고, ‘-가, -냐, -카’는 판정 의문에 사용된다. 단, 語尾 /-고/는 完了相이나 未完了相의 형태소와 결합시에는 반드시 判定疑問이 된다.

13. 의문법 어미 ‘-냐, -가, -카(-아)’가 주로 壯年層 이하의 발화에서는 설명 의문으로도 쓰이는 것은 改新波에 의한 語形 統一化의 한 현상으로 판단된다.

14. 濟州方言의 命令法 語尾 /-라/의 형태는, 표준어에서 신문·잡지 등의 불특정 다수 대상에게 사용하는 ‘하라’命令과 동일한 活用을 하는 매우 특이한 것이다.

15. 原語民(native speaker)의 婦女子들 사이에서 흔히 쓰이는 命令法 語尾 /-심/은 濟州方言의 특이한 예라고 할 수 있다. 이는 표준어의 경우 「하오體」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濟州方言의 「하여體」 명령법 어미 중에서 상대방에 대한 존중의 뜻

이 가장 강한 것이다.

16. 「ᄃᆞᆫ여體」 명령법 어미 /-자/의 사용은 濟州方言의 특이한 점인데, 이 어미는 話者가 同年輩나 年下者를 禮遇할 때에 사용되며, 주로 수평 억양을 취한다. 청유형 어미 /-자/는 「ᄃᆞᆫ라體」에 해당되며, 주로 내림 억양을 취한다.

17. 「ᄃᆞᆫ여體」 請誘法 語尾 /-게/는 명령법 어미 /-아게~-어게/와 달리 ‘-아-~-어-’가 그 앞에 結付되지 않는 濟州方言 특유의 형태이다.

18. 濟州方言의 감탄법 어미에서는 「ᄃᆞᆫ서體」에 해당되는 것이 나타나지 않는다.

19. 「ᄃᆞᆫ라體」 감탄법 어미 /-로고나ㄴ-로고낭/은 표준어와는 달리, 推測法 語尾 /-ㄹ-/에 後接되거나, 동사·형용사의 어간은 물론 받침 없는 체언이나 서술격 조사의 어간에 직접 연결되어 사용된다.



參 考 文 獻

- 康貞姬(1978), “濟州方言의 時相研究”, 「梨花語文論集」4輯, 梨花女大 梨花語文學會.
- _____ (1982), “제주방언의 문법화 과정에 대하여”, 「國語學」11집, 國語學會.
- 高永根(1974), “現代國語의 尊卑法에 대한 研究”, 「語學研究」10-2.
- _____ (1981), “中世國語의 時相과 叙法에 대한 研究”, 서울대학원.
- 고영근·남기심(1986), 「국어의 통사·의미론」, 탐출판사.
- 金公七(1977), 「方言學」, 正向出版社.
- 金美京(1987), “濟州島方言의 疑問法 研究”, 濟州大 教育大學院.
- 金敏洙(1980), 「國語文法論」, 一潮閣.
- 김승곤(1986), 「한국어 통어론」, 아세아문화사.
- 문효근(1974), “한국어 성조의 분석적 연구”, 세종출판공사.
- 朴用厚(1960), 「제주방언연구」, 동원사.
- 徐禎穆(1984), “疑問詞와 wh-疑問補文子의 呼應”, 「國語學」13집, 國語學會.
- 石宙明(1960), 「제주도 방언집」, 동원사.
- 성기철(1973), 「國語學 新講」, 개문사.
- 成洛秀(1975), “濟州島方言의 統辭論的 研究”, 「국어국문학」68·69합병호, 국어국문학회.
- 安秉禧(1965), “後期中世國語의 疑問法에 대하여”, 「學術誌」제6집, 建國大.
- 饒燕娟(1974), “韓國語 補助語幹 研究”, 建國大 大學院.
- 이길록(1976), 「국어문법연구」, 일신사.
- 李男德(1970), “十五世紀 國語의 叙法研究”, 梨花女大 大學院.
- _____ (1982), “濟州方言의 動詞 終結語尾 變化에 나타난 時相體系에 대하여”, “韓國文化研究院論叢」40輯, 梨花女大 韓國文化研究院.
- 李崇寧(1964), “中世國語의 mood論”, 「어문학」11호, 어문학회.

- _____ (1985), 「中世國語文法」, 乙酉文化社.
- _____ (1977), 「濟州島方言의 形態論的 研究」, 「國語學 論文選」6권, 民衆書館.
- 李承旭(1963), 「疑問添辭攷」, 「국어 국문학」26호, 국어국문학회.
- 이원재(1976), 「國語의 叙法體系에 對한 研究」, 延世大 教育大學院.
- 李仁模(1975), 「中世國語의 叙法과 時制의 研究」, 高麗大 大學院.
- 李鍾徹(1964), 「現代國語의 時制와 相의 研究」, 「국어연구」12호, 서울大 大學院.
- 全仁得(1979), 「慶北 尙州方言의 活用語尾 研究」, 嶺南大 大學院.
- 정영진(1983), 「濟州島方言의 終結語尾 研究」, 東國大 大學院.
- 濟州大學校 耽羅文化研究所(1985), 「濟州說話集成(1)」, 耽羅文化叢書(2).
- 조병진(1977), 「서법에 있어서의 정중도의 변동에 대한 연구」, 延世大 教育大學院.
- 崔範勳(1981), 「中世韓國語文法論」, 二友出版社.
- 최현배(1961), 「우리말본」, 正音社.
- 韓榮均(1984), 「濟州方言 動名詞語尾의 統辭機能」, 「國語學」13輯, 國語學會.
- 허웅(1975), 「우리 옛말본」, 샘출판사.
- 玄容駿(1980), 「濟州島巫俗資料事典」, 新丘文化社.
- 洪宗林(1975), 「濟州島方言의 疑問法에 대한 考察」, 「論文集」8集, 韓國國語教育研究會.
- 玄平孝·金洪植·姜根保(1973), 「濟州島方言의 活用語尾에 대한 研究」, 「論文集」6輯, 濟州大學.
- 玄平孝(1985), 「濟州島方言 研究(資料篇)」, 太學社.
- _____ (1985), 「濟州島方言의 定動詞語尾研究」, 「濟州島方言研究(論攷篇)」, 二友出版社.
- George Oliver Curme(1961), 「Syntax」, Tokyo.
- Otto Jespersen(1955), 「The Philosophy of Grammar」, London.

(Abstract)

A Study of the Mood Patterns in the Cheju dialect

Choi Hak-Kyoo

Korean Language Major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Cheju National University

Cheju Korea.

Supervised by Professor Kim Hong-Sik

The Cheju dialect has many peculiar endings distinct from that of the Modern Standard Korean in the mood patterns no less than in phoneme and vocabulary. Especially in this thesis, the mood patterns of the Cheju dialect described as "the final verbal endings" such as 'həra, həjə, həpsə' modes have been studied. From the viewpoint of the characteristic of the conversational form, not only the change of mood in morpheme but that in intonation has been examined. The results are as follows :

- 1) The ending '-na' is used in the interrogative mood of the Modern Standard Korean, but in the Cheju dialect, it is used in both the declarative mood and the interrogative mood.
- 2) In the Modern Standard Korean, '-lk'əja' used in the declarative mood or the interrogative mood is used in the form of '-lk'ə', which has left out the

※ A thesis submittee to the Committee of the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Cheju National University in partial fulfillment of the Requirements for the degree of Master of Education in May, 1989.

ending mainly among the younger generation in Cheju.

3) In the Cheju dialect, the forms '-ara~-əra' are only used as the declarative endings which make us recall retrospection of the past and the characteristic of uniting both verbs and adjectives.

4) '-ge', declarative ending of 'həra' mode, has morphologic restriction which is bound to unite the retrospective endings, /(-an-~-ən-)∞-ran-)/.

As it has 'High-Rise-Fall' intonation, it has the meanings that urge the hearers to positively recognize the judgement of speakers.

5) When the ending '-me' is directly related to the stem of a verb, the declarative mood is formed.

6) The endings /-a~-ə/ are the same morphemes in both the declarative mood and the interrogative mood. When it is used for modifying the subject of the first, third person in the declarative mood, When it is used for modifying the subject of the second person in the imperative mood, it takes falling intonation, but in the interrogative mood, it takes rising intonation.

7) The ending /-rogo/ is used for the declarative, interrogative, and exclamatory mood in whole.

8) The endings '-amda~-əmda' are also the same forms of the declarative and the interrogative mood. In the interrogative mood, the sound /t/ of the ending /-ta/ is changed into /d/, and in the declarative mood, the sound /t/ of the ending /-ta/ is changed into /t' /

9) The most characteristic of the use of the interrogative mood is that the ending used both 'wh-question' and 'yes-no question' is distinguished

distinctly. The endings ‘-ko, -ti, -ni, -i, -k^ho(-o)’ are always used in wh-question, and the endings ‘-ka, -nja, -k^ha’ are used in yes-no question. However, only if the ending /-ko/ is united with the perfective or imperfective forms, it always becomes yes-no question.

10) The imperative ending /-la/ in the Cheju dialect, is very peculiar one which has the same usage as the imperative ‘hara’ which is used for many and unspecified persons of newspapers, magazines, etc., in the Modern Standard Korean.

11) The imperative ending /-sim/ which is frequently spoken among women of native speakers can be a peculiar example in the Cheju dialect.

12) /-tj a/ of the imperative ending ‘həje’ mode, is peculiar form in the Cheju dialect. This ending is used when the speaker respects the persons of the same age and the younger persons, and it has mainly level intonation. The inviting ending /-tj a/ corresponds to ‘həra’ mode and it has mainly falling intonation.

13) /-ke/ of the inviting ending ‘həje’ mode, differed from the imperative endings /-age~əge/, is a peculiar form which is not attached to ‘-a- ~ -ə-’ before /-ke/.

14) What corresponds to ‘həpsə’ mode does not appear in the exclamatory ending of the Cheju dialect.

15) /-logona ∽ -logonaŋ/ of the exclamatory ending ‘həra’ mode, differed from the Modern Standard Korean, is connected with the presumptive ending /-l-/ , or it is used directly connecting the stem of a verb as well as that of the predicative postposition or the substantives without a support.